EAST ASIAN LIBRARY
RM 80 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1 4 1981

— 1 —

The Korea Times Toronto (Daily)

(일간) No. 550 1981년6월26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June 26.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9184

특별전담반구성요청

나성카운티, 한인타운 범죄조직 근절위해
검찰·경찰서도 강력수사, 교포들 협조요망

〈나성지사〉 한국타운 조직범죄에 관련해 LA카운티 수퍼 바이저회의는 16일 카운티검찰당국에 대해 한인타운 범죄조직분쇄를 위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요청했다.

덴·윌프 LA카운티공보관은 17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퍼 바이저 전체회의에서 한인타운 조직범죄실태를 보도한 LA타임즈기사를 중심으로 토의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수퍼 바이저회의의 결정사항은 16일 LA카운티 존반·데·캠프 검찰총장에게 전달되었는데 이 서한에서 한인사회의 범죄양상과 그수사 절차를 통보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퍼 바이저회의는 검찰청에대해 한인상가에 대한 금품강요에 관련된 범죄와 기타 범죄행위에 관한 조직범죄단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LA카운티검찰청은 코리아·타운 조직범죄를 수사하기위해 리처드·젠킨스차장검사를 특별전담검사로 17일 임명했다.

젠킨스검사는 수퍼·바이저회의의 요청에의한 한인사회 범죄실태를 집중수사 하게된다.

또 LA경찰국 동양인과 루터넌 지미·사끄다과장은 한인사회 조직범죄사건 보도기사에 대하여 LA경찰은 한인사회의 협조를 얻어 강력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끄다과장은 한인사회 범죄실태를 대릴·게이츠 경찰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휘를 받고있다고 밝히면서 특별수사반을 구성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사끄다과장은 『범죄 근절을 위해서 컴뮤니티로부터 정보제공, 증언및 고발이 필요하며 경찰과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6·25 특별연재

캐나다군의 한국전 참전 ③

맥아더 : "캐나다군은 불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였다. 공산세계와의 전쟁 가능성이 있었고 일부 좌경국가에서는내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으나 당시 국방장관 부르크·크랙스톤은 캐나다 군사력을 암담한 상태로내버려 두었다. 병력의 절대수가 부족했고 낡은탱크나 느린전투기 등으로 무장, 화력이 약했다.

다른곳은 달랐다. 프랑스 수상 르네·프레번은미국대통령 트루만에게 프랑스가 침략을 당하면 소련에 원자탄을 투하할것을요구했다. 영국 공산당은당원들에게 미영 군사동맹파괴공작을 명했다 수척의 영국군함들이 파괴되었고 영국잠수함 트리젠트는 방화미수사건을 당했다. 몬트리얼과 퀘벡시 중간에있는 드프레시스다리가 무너졌다. 다리를 엉터리로건설한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수상 모리스·드프레시스는 속수무책 이었다.

"만약 소련과 전쟁이 난다면 캐나다는 첫번째 공격목표가 될것이다"라고캐나다 공군총 사령관 스티븐손이 경고하고 해군부제독 구스리는 캐나다가 유럽에 못지않는 공중전 취약지구라고 재삼 경고했다. 그는 소련전폭기가 북극에서부터 캐나다 도시에 원자탄을 쏟으면서 미국으로 공격해 들어갈 것이라고말했다.

북미전역의 어린이들이 민방위에 대해 배웠다. 뉴욕시 헌즈지역공원의 고사포 진지는 실제로 공중전에 대비한 것이다.

한국전이 발발하자 서방지도자들은 스탈린이 서방군을 한쪽구석에 몰아놓고 유럽을 기습하리라고 생각했다. 50년대 전반에걸쳐 스탈린과 그의 괴뢰들은서방동맹국들의 취약점을 물고늘어졌다. 서방국가들의 유대가 조금이라도 약했으면 그리스는 공산국이 됐을 것이다. 스탈린은베르린을 봉쇄했고 지하에서는 첩보전이 불을 뿜었다.

당시 캐나다 군사령관은 J·M·록킹햄준장 이었다. 그는 제2차대전중 북서부유럽의 캐나다군 사령관으로 탁월한 장군이었다. 그는 한국전이나자 다시 군에 복귀했다. "한국참전캐나다군은 내가 이제껏 지휘했던 병사들 중에서도가장 훌륭했었다. 그들은 한국에 파병된 세계어느 군인들보다 우수했다"라고아직도 브리티쉬·콜럼비아주 체리첨에서 여생을 보내는 록킹햄장군은 말한다. 장군은 훌륭했다(Magnificent)라는말을 반복했다. 그들은 잘 훈련받았다.

첫 참전부대인 패트리셔(Patricia)제1대대가 준비완료되어 한국으로 향하고 있을때 유엔군은 중국국경 압록강까지 돌진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났다고믿은 맥아더는 "캐나다군은 별로 필요치 않으니 깃발이나날릴 한줌의 병사만 보내라"고 선심써서 말했다. 그는 캐나다군이 모두 지원군이며 용기백배하다는 말에 무관심 했다. 이렇게 탁상공론이 오가는동안 중공군이 국경을넘어 유엔군을휩쓸어 내려가자 맥아더는캐나다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캐나다군은 많은 전투를 치뤘지만 가장 유명한전투는 1951년 4월 경기도가평 계곡에서 벌어진 가평전투였다.

그해봄 유엔군은 38선을 향해 재북진했고 공산군은 이들을 함정에몰아 일대타격을 가할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유엔군 일부가38선을넘자 공산군은 70만의 새로운 병사를 은밀히 교체, 대공세를 준비했다. 공산군은 유엔군을 포로로 잡는것 보다는 가능한한많이 살상, 아군에게 재 정비할 여유를 주지않는 작전을 세웠다.

대 포위공세가 시작되었을때 패트리셔부대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군등과 함께 계곡에 있었다.(계속)

◇캐나다군의 용맹을 알린 가평전투에서 부상병이 후송되고 있다.

베일벗는 이민휘회장 사건

—「곧 풀려나온다」에서 「전격기소」로 발전하기까지

축점 FOCUS

(LA지사)

『이민휘남가주한인회장구속사건』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한국검찰당국이 이회장의 기소를 처음 밝힘으로써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남가주한인회에서는 『이회장이 곧 석방될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진정서등을 통해 구명운동까지 펴왔으나 이미 타이밍을 놓친것 같다.

『이회장을 풀어 줄것이냐, 기소할것이냐』에 대해 LA교포들은 커다란 관심을 가져왔으나 지난1일 검찰이 이회장의 구속기간을 2차로 연장하면서 부터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이 사건을 처리할 모양』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씨사건의 의문점은 애당초 『돈의 출처가 어디냐』와 『왜 경찰이 이씨를 사건당일(5월15일) 일단 석방했다가 닷새가 지난후 다시 구속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씨가 갖고 나오다 걸린 15만5천달러가 본인의 주장대로 자기돈이라면 남가주한인회장이라는 체면을 생각해서도 외환압수및 벌금 정도로 끝낼수 있었을텐데 왜 사건이 점점 얽혀들어가는지에 대해 해답이 나오지가 않았다.

사건직후 이씨가 백방으로 뛰었으나 평소 가깝던 인사들이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일부는 『면회사절』로 끝까지 냉담한 반응을 보인 사실과 서울에 간 LA교포인사들이 『정상을 참작 해달라』고 관계요로에 건의했으나 『이사건은 아무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부탁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창백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새나오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검찰이 『이씨는 외환관리법위반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밀수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고 밝히고 보니 구명운동하던 인사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LA의 일부 교포인사들이 이씨의 구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대정부강경책운운…』의 이야기가 튀어 나왔을때 한편에서는 『그것은 이회장을 돕는것이 아니라 더 죽이는 결과만 초래할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었다. 왜나하면 검찰측에서도 이씨구속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전모를 밝히지 않을수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전개될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검찰은 아직도 이회장의 돈의 출처조사 경위를 밝히지 않고있다. 이씨의 돈으로 결론이 지어지면 이사건은 확대되지 않고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씨가 또한번 다른곳으로 옮겨질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민휘회장 구명운동도 그와의 안면을 생각하여 증명용으로 말잔치를 하는식은 이미 지났다. 변호사비용등 이씨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지원을 『인간적인 우정』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지 공공연히 그의 석방을 주장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져 『보약』이 『독약』이 되는 엉뚱한 결과를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일부 이회장 친지들은 우려하고 있다.

검찰이 77년에 있었다는 다이어몬드밀수혐의를 왜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들춰내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하튼 이번사건은 미주한인사회단체장들의 몸가짐에 큰 교훈을 남겼으며 한국정부가 교포단체장이라 가며라도 눈감아 주는데는 한계가 있다는점을 명백히 밝혀놓았다.

▲지난1월 전두환대통령 LA방문당시 공항에서의 이민휘회장. 그는 이때 환영준비위원장직을 맡아 한인회장이라는 자리를 돋보이게했으나 아이러니칼하게도 이번에는 한인회장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을 저질렀다.

화물열차 탈선 250여명 대피

(선드리지=온타리오)11량의 개소린탱크 화차를끌고가던 CN소속 화물열차가 탈선하[illegible] 250여명의 주민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24일밤 9시20분께 발생했다.

사상자는 없었으나 와스웰·호텔에서 숙박하던 37명의 토론토거주 노인들도 파자마 바람으로 대피했다. 선드리지는 토론토 북방 350km지점에 있는 인구 7백명의 마을이다.

2년전 미시사가에서는 화공약품을 실고가던 화차가 탈선. 25만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세계적 사건이 일어났었다.

이번 사고 열차는 81량의 화차를 끌고 있었으며 32번째의 화차 바퀴 베아링이 과열. 11량이 탈선했다. 개솔린을 실은 화차 6량에서 화재가 발생. 화염이 수백피트 공중으로 치솟았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 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어디로 모실까요?
유럽관광
출발 : 7월6일 8월5일
귀환 : 7월21일 8월20일
U.S. 딸라 1690불
(뉴욕 출발, 귀환)
※15일간에 걸쳐 17개도시 관광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모국방문 IATA 특별요금
631 A BLOOR ST. W. TORONTO,
B) 535-8801 R) 293-9970
최 동 주

M5S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MOBILE DR
TOR. M4A 1H9
☎ : 752-7771

회　장 : 이 형 인
부회장 : 임 철 원
〃　 : 김 명 점
이사장 : 김 태 직
부이사장 : 전 윤 석

협회로고(LOGO)제정
드디어 마무리 단계

그 동안 협회임원들이연구·검토해 오던 로고(뱃지·상징부호)가 마지막 제작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림의 원본은 교포 임윤식씨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회원들의의견을 모아 다시 한번 수정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즉시 7월중으로 우선 "도어스티커"(door-s ticker)를 제작, 배부한다는 일정을 짜고 있다.

로고 제정의 목적은, 모든 회원스토어가 K.B.A. 회원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고객이나 세일스맨들과 접촉하게 될 때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협회의 단결력과 근면·성실의 자세를 무언으로 강조할 수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 원형의 테두리 속에는 태극바탕에 캐나다국기인 단풍잎을 조화시키고, 수탉과 올빼미의 그림을 나란히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들 한국인의 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나라에서 상징된 동물처럼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한다는 봉사정신의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둘레에 온타리오한인실협인협회라는 영자와 실협이라는 한글약자를 잘 보이게 넣었다. 색은 흑·적·청색의 세가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 로고를 각회원스토어의 도어에 부착하게 되면 그 스토어가 협회멤버임을 자연히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다더 근면하고 성실히 봉사한다는 것과 친절하고 정직하며 청결한 스토어라는 인상을 주도록 책임있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서로서로 굳은 유대감을 다지는 것으로 어떤 어려움도 슬기있게 대처해 나가는 코리언의 기백을 과시하는 계기로 이끌어져야 할 것이다.

로고 제정작업이 끝나기전에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바라며, 더 좋은 아이디어나 작품을 제공해 주시는 전문가에게는 응분의 사례도 있을 것이라 한다. 자세한 것은 협회사무실로 연락 바라고 있다.

ONTARIO KOREAN 실 협 BUSINESSMEN'S ASSOCIATION
적 Red
청 blue

◇실협 로고 원본

연료비 인상 보조책으로 노년세대당 $60지불

온타리오정부는 연료비 인상에 대비, 약 1억2천만달러를 140만명의 저소득층과 노년층에게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온타리오주내 54만 세대의 노년층이 내년봄에 60달러씩의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받는다.

연수입 6,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앞으로 3년간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온타리오주는 이번 겨울에 휘발유값을 36%, 연료비는 67% 인상한다고발표했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533 2361

—상인을 위한 대책—
환불과 교환조건 ②

②어떤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가.
③보상이 되는 크레딧과보상내용
④어떤 상품들이 해당되는가.
⑤그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요건.
⑥환불과 교환의 조건
⑦그 기간의 명시
⑧기타 필요한 사항들

만일 이 방법을 특별 세일 품목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No refunds on Sale Item) (세일품목 환불 사절)이라고 써서 부쳐야 하는 것등이다.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직원들(Stafy)이 그 방법(Policy)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 어떤 종류의 질문이든지 고객이 돈을 지불하기 전에 친절히 그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정직은 어떤 경우든지 가장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환불과 교환을 요구 당할 때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을 명심하라.

여기 그 지침 몇가지를 소개한다.

①비 현실적인 기대감을주는 언질을 피해야 한다. 그 상품의 수명이 다 할때까지(Lifetimt)보장한다는 말 같은 것인데 대체로 일반 상품은 5년정도의 수명이 있다고보기 때문이다.

②당신이나 당신의 직원들은 반드시 소비자 보호법을 익혀야 한다. 어떤 세일 품목이든지 지나친 과장 행위는 "The Business Practice Act"에 위반되는 것이된다. 그런 일로 인해서 상품매매가 취소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3. 환불과 교환에 대한불평이나 항의를 대처하는 몇가지 실예들…

①먼저 부착해 놓은 안내문를 보여 준다.

②당신이나 다른 직원들은 반드시 정중한 자세와세련된 대화를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할 것이다.

③어떤 이유로 그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라. 제품 자체의 결점 또는 과장된 세일 선전 까닭인지? 식별해야 하며 만일 그 같은 경우라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 고객을 자기의 단골로 삼는 기회가 되도록 하라.

④만일 그 상품 제품 회사의 미스라면 당신은 고객과 제작 생산회사 중간에서 협조적인 중개자(Modiator)가 되어 주도록 해야 한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⑳

팔리·모왓 원작, 원재흥 옮김

프란쯔는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털겨주자 맛있다는 듯이 담배를 피워물었다. 이때 나는 궁금증을 못참겠다는 듯이 "프란쯔, 그 애는 너의 애냐?" 하고 물어보았다. 프란쯔는 나를 쳐다보지도않고천천히 고개를 끄떡거리더니 "그렇소" 전에 나한테 쓰던 친절한 목소리와는 딴판인 거의 적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소. 그애는 내 아이요. 저 북쪽 밖에서 그 애를 주워왔소. 그애는 내 아이요" 마치 이 믿을 수 없는 아이에 대한 그의 권리를 다투기라도하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대답했고 마지막에는 힘을 주어 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선뜻 쿠니와 아노타일릭 남매를 찾게된 동기를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 후에 나는 에스키모들로부터 직접 더 많은 세부적인 이야기를 듣게되었다. '물에 잠겨축축한 평원과 자갈둥성이를 지나 윈디베이에서북쪽으로 약60마일 올라가면 우리가 카잔이라고 흔히 부르는 강둑에 접하여 (정확한 이름은 이누이트·쿠사람이 사는 강·리틀레이크라는 호수가 자리잡고 있다. 이누이트는 바렌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종족을 부르는 이름이다. 에스키모라는 말은 그들이 쓰지않고다만 인디언들이 이사람들이 날고기를 먹고산다고 해서 붙인 이름임)

리틀레이크의 호수물은 거기서 멀지않은 엔나데라는 호수에서부터 흘러들어온다. 몇세기동안 이몇개의 호수와 주위의 작은 산들이 이들 내륙에사는 사람들의 문화의 중심지였다. 사람들은 이누이트쿠 주위의 높고낮은곳에 흩어져살면서 주변의 작은 호수와 평원을 흐르는 강마다 그들의 천막을 세웠다.

네살이된 쿠니이는 캠프의 생활에서 여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깊고 진지하게 이미 알만큼 자랐다. 그녀는 할머니를 따라서땔감을찾아 버드나무 가지를 주워모으고 호수에나가 물을길어 오거나, 혹은 어머니가 입에서 피를토하면서 있을수 없을때 밥짓는 불을 보살피곤 했다. 앙그레알락의 이글루는 오—테쿠만익(오테의 호수라는뜻임)의 북쪽 호수변에 서 있었고 그 주변에 3개의 다른 캠프가 있었다. 앙그레알락의 이글루외에 몇마일이 내에있는 다른 호숫가에여덟개의 이글루가 있었는데 이들이 살아남은 그사람들의 전부였다.

1946년 늦은겨울 앙그레알락과 그의이웃인 오—텍은 함께 사냥길에 올랐다. 이제는 리틀힐 밑에있는이글루에도 먹을것이 거의없어졌다. 두사람은 세마리의 개가끄는 썰매를타고갔는데 개밥도 역시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프란쯔의 오두막까지 왔다. 그들이 내려오는 넓은 벌판에는사슴뿐만 아니라 사슴 발자국도 없었다. 사슴은 사람을 무서워했다.

다행히 프란쯔는 그들이 도착했을때 집에있었고,두 방문객은 그와함께 밤을지냈다. 아침이되자 그들은 프란쯔가 그의 줄어든 식량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을 받아들고 떠났다.

프란쯔는 그들이 떠난후 그들이 그에게 이야기해준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착잡하게 기분나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할미우트족의 캠프에는 먹을것이 거의 떨어지고있음을 알수 있었다. 왜냐하면 가을의 사냥은 대수롭지 않았던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최근 이할미우트땅을 통과하면서 개밥을 줄려고지난 가을에 묻어논 사슴고기가 없어진것을 발견했다. 이 고기가 사람의 창자를채워줬다는것을 쉽게 알수있었다. 이 사람들은 죽을지경으로 배가고프지 않다면법을위반 하면서까지 남의것을 훔쳐먹지 않는다는것도 알고 있었다.

이한겨울에 오—텍과 앙라이 찾아와서 프란쯔에게 사슴은 그땅에서 없어졌고 봄철이 일찍 오지않으면따뜻한 햇빛이 사슴을 다시 몰고오기전에 그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줬다.

프란쯔는 이 예언을듣고 그의 가슴속에는 울분이동정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이 야만인들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감을 갖게하는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가하는것같이 백인들처럼 미리 앞일을 내다보며 준비하지못하는 선견지명이없는 빙충맞은것에대한 분노였다.그 분노는 또한 그들이 그의 고기를 훔쳐내어 그의생계가 달려있는 덫을 놓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한다는 것이었다. (계속)

회원 문예작품 공모

본 협회에서는 198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회원여러분의 문예작품을 모집하여 우수작을 시상코자 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심을 바랍니다.

—아　　래—

용모마감 : 1981년 7월30일
작　　품 : 수기, 시, 수필, 꽁트등 원고제한 없음.
심사위원 : 추후 발표함
시　　상 : 1등 상패및 부상($500현금)
2 〃　〃　($200현금)
3 〃　〃　($100현금)
원고제출처 : O.K.B.A.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원고 반환없음)

온타리오 한인실업인 협회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제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7년간 봉사해온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200億규모 藝術人金庫 설립

李文公、80年代 精神文化계발政策 발표

朝鮮時代史편찬·국립藝術大學校 설립

藝術활동의 地方分散

道마다 문화회관·藝術人 醫保실시

全國을 6大文化圈化·企業體예술단체 育成

世宗국악당 建立·어린이博物館학교를 운영

청소년綜合예술제·交響樂團·劇團창단 추진

精神文化啓發의 시대가 될 80년대 새문화정책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李光杓문공부장관은 23일상오 국립예술대학설립, 예술인금고설립등을 골자로한 새문화정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새문화정책은 民主福祉正義社會의 새歷史창조를 위한 정신적支柱를 마련하기위한 것으로 ①민족주체성의 확립 ②문화혜택의 均配와 문화적복지의 구현 ③문화예술인의 예술성신장및 창작、연구활동의 지원체제와 사회여건개선에 장기목표를 두고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새문화정책의 장기목표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정책基調를 문화적주체성의 확립, 창조적 문화역량 提高, 사회교육의 문화적 역할提高등 5개항에 두고계획된 다양한 사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창조적인 문화역량의 제고등 새문화정책의 실현을위해 우선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국립예술대학교의 설립과 2백억원규모의 예술인금고설립, 직업적인 예술단체의 창설유도, 문화예술자료센터운영, 문화예술인의 의료보험등을 실시, 국향의 KBS이관、기업체의 전속예술단체육성을 운영권장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을위해서▲정신문화연구원의 기구확대▲朝鮮時代史의 편찬▲무형문화재의 기록보존▲문화재보존과학의 개발▲中西部百濟문화권등 古都및 문화유적개발▲世宗사상宣揚과 국악당건립▲박물관·미술관·국악원등의 시설확충과 어린이박물관운영및 문화교육기능을강화해민족문화에대한국민의 의식을 깨우쳐나간다.

李장관은 문화적혜택의 社的분배를 위해서 지역간세대간 계층간의 격차를완화할 시책을 펴나가겠다고다짐했다.

이를 위해 전국을 서울中部·太白·嶺南·湖南등 5대문화권과 濟州문화권으로 나누어 각문화권특성에 맞는 전속예술단체의 육성을 지원하는한편 문화예술활동의 지방분산화를 위해 국립극장소속단체의 지방공연과 문화행사의 지방개최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회교육의 문화적역할을 높이기 위해 ①방송·출판등 대중매체와 관등 문화기관의 문화교육기능강화 ②道단위 문화종합회관건립 ③工團지역근로자 청소년종합예술제개최 ④청소년교향악단및 청소년극단창단등을 추진키로 했다.

李장관은 새문화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관계행정기구와 법령을 개선하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율을 높이는 한편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시책들은 82년부터 우선순위로 추진되나 현대미술관 건립은 올해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돼 서울江南지역에 야외조각전시장을 겸한 부지를 물색하고있고 문화재등 일부사업은 이미진척중에있다.

家計手票制 9월부터 施行

貯蓄예금金利 年14.4%로 7월부터

금융당국은 일반국민들의 은행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가계저축을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家計手票保證카드(체크카드)제를 새로도입, 오는9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貯蓄예금, 家計綜合예금등 서민저축예금 금리를 연14.4%로 대폭인상, 7월1일부터 적용키로했다.

★관련해설 4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3일 현행 평균 9.4%(30일미만 5.5%, 30일 이상 12.3%)인 저축예금금리를 14.4%로 크게 인상, 예입기간에 관계없이 平殘附利(月中예금평균잔액 기준으로 이자를붙여 주는것)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해 주기로 했다.

또 家計當座예금을 家計綜合預金으로 개편,저축예금과 똑같이 14.4%의 이자를 平殘附利방식으로 지급해 주기로했다. 가계당좌예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자를 한푼도 붙여주지 않았었다.

이번 조치로 가계종합예금이나 저축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은행에 단 하루만 돈을 맡겨도 높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 저축예금의 1인당 예입한도는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됐고 가계종합예금은 2백만원으로 정해졌다.

금통운위는 또 가계예금금리의 대폭적인 인상으로은행수지가 압박받게되는 점을감안, 현재 평균10.5%(저축성예10%, 요구불예금14%)로돼있는 예금은행 支準率을 5.5%로 낮추었다.

사우디 總參謀長에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23일 하오 청와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총참모장인 모하메드·살레·알·하마드 육군대장에게 保國훈장 統一章을 수여했다. 이자리에는 周永福국방, 金容烋총무처장관과 尹誠敏합참의장이 배석했다.

亞洲기구議長 被選 케냐大統領에 祝電

全斗煥 대통령은 23일 아프리카단결기구(OAU)제18차頂上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다니엘·아랍·모이 케냐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한국은 이기구의 평화와 발전을 향한 熱望에 공감하며 아프리카전대륙의 독립、자유、정의및발전을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월터즈美순회대사

"中共、駐韓美軍 내심환영"

월터즈美特使 撤收後의 東北亞安保 예의注視

中共지도자들은 駐韓美軍의 常駐문제를 각별한 관심거리로 여기지않으며 오히려 駐韓美軍의 철수가 한반도를 비롯한 東北亞안보에 끼칠결과를 더욱 주시, 駐韓美軍의 주둔을 내심환영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헤이그美국무장관을 수행, 中共방문을 마치고 歸路에 訪韓한 버논 월터즈美국무성 巡廻대사가 23일 美·中共정부지도자간의 요담내용을 설명하는가운데 밝혀졌다.

월터즈大使는 이날오후 국내외 기자회견을 통해 『中共은 지금까지 駐韓美軍은 철수해야된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사실상 어느 상황하에서도 각별한 관심사항은 아니었다』고 전제, 『中共지도자들은 駐韓美軍의 철수가 초래할 결과를 염려하고 있을 만큼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駐韓美軍의 군사력과 장비강화에 언급, 『현재 韓美양국간에 이 문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인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앞으로 駐韓美軍의 철수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않고있다』고 강조, 지난 2월 韓美頂上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상기시켰다.

월터즈大使는 또 소련의 군사적 우위확보에 대한 美側의 결의를 표명, 『美대통령과 의회는 물론 美국민들도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으며 (한 例로)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주변에 美軍의 越南參戰을 기리는 기념비가 건립중이다』고 밝힘으로써 소련과의 군사적 불균형을 회복하기위한 美행정부의 결의를 시사했다.

월터즈大使는 美행정부의 금년도 軍事費가 3백20달러로 늘어난 사실을 아울러 지적하고 이사실을 越南戰참전비건립문제와 함께 全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월터즈大使는 全대통령에 대한 보고를통해 헤이그美국무장관이 鄧小平 中共부수상을 비롯 中共外相, 經濟相들과 가진 일련의 회담내용을 전했으며 한반도문제에관한한 우방이자 지역당사국과의 사전협의없이는 어떠한결정도 취하지않을것이라는 美側입장을 한국정부에 거듭밝혔다고 말했다.

월터즈大使는 23일하오 출국했다.

淨化된 3級이상公務員·傘下任員

就業제한 내달 해제

지난해 7월 사회淨化작업의 일환으로 退職한 3급(부이사관급·총경)이상 前職의 공무원과 정부산하단체 任員에 대한 就業제한조치가 7월부터 해제된다고 23일 金容烋총무처장관이 발표했다.

이번에 취업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사람들은 3급이상前職공무원 2백63명과 전직 정부산하단체 任員 1백71명 등 모두 4백34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公職者사회정화작업을 단행, 3급이상 공무원과 정부산하단체 임원등 4백34명을 포함, 4급이하 산하단체직원등 모두 8천8백77명을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했고 그해 9월 대통령지시에 따라 당초의 취업제한기간 2년을 3급이상에 대해서는 1년으로, 4급이하에게는 6개월로 단축했었다.

在美 崔德新 平壤을방문

【서울=聯】美國에 체재중인 前天道敎領 崔德新이 22일 平壤에 도착했다고 北傀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지난76년2월 미국으로 건너가 反政府활동을 해온 崔의 이번 訪北은 지난해 10월 캐나다에 거주중 일단의 태권도단을 이끌고 平壤을 방문한바있는 反政府인물 崔泓熙의 주선에의해 이뤄진것이라고 北傀방송은 전했다.

崔는 平壤공항에서 北傀黨정치국원 林春秋·부총리 鄭凌基·조국전선 서기국장 許貞淑등과 만났으며 그는 北韓체류중 지난해 北傀가 국내외인사에게 위장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이른바 편지를 발송한바있는 北傀조국평화통일위 위원장 金一등과의 면담을 피력한것으로 北傀의 이방송은 전했다.

◇最古의 太極旗 인수식이 23일상오10시30분 문공부에서 열렸다. 태극기를 펼쳐보이고 있는 李光杓문공장관(左)과 롤스턴씨(右).

本社서 찾아낸 「最古의 태극기」 돌아왔다

서울에 도착한 最古의 태극기가 23일 상오10시30분 文公部에서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인계되었다. 이최고의 태극기는 美國의 現所藏者 윌리엄·나이트·롤스턴씨(변호사)의 아들인 윌리엄·롤스턴씨 夫婦가 80세 高齡의 부친을 대신해서 서울로 가져온 것으로 롤스턴씨 부부는 李光杓문공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引受式에서 李장관은 참석한 崔淳雨국립중앙박물관장, 黃壽永문화재위원장등 관계학자들에게 最古의태극기를 펼쳐 보여 주었다.

91년만에 다시 고국으로돌아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태극기는 1886~90년간 高宗의 외교고문으로 韓末 열강의 무대에서외교관으로 활약한 오웬·니커슨·데니卿이 高宗에게서 직접 下賜받은 것으로, 데니卿의 친손자인 윌리엄·롤스턴씨가 데니卿의 遺品으로 소장하고 있었다. 인수식에서 롤스턴씨 부부는 『한국국민에게 더없이 귀중한 歷史的價値를 지닌 것을 돌려주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롤스턴씨부부는 90년전 그들의 先祖 데니卿이 활약했던 우리나라 各地를 돌아보게된다. 이 最古의 태극기는 한국일보에의해 발견돼, 本報의 지난 1월5일자에서 처음 보도했다.

無許건물 모두 陽性化

浸水地·災害위험등 整備지역제외

金건설、國會建設委보고

金周南건설장관은 23일『전국의 45만3천棟의 무허가건물중 도시계획시행에 지장이 없거나 침수지재해위험지역등 정비사업이 불가피한 지역외에 있는 무허가건축물로서 陽性化기준에 적합한것은 양성화하고 양성화되지않는 건물은 상수도시설, 도로 개신등으로 생활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밝히고『6월부터 10월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전면재검토, 도시계획 시설、再개발지구등 조정하여 陽性化대상을 확대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

金장관은 이날하오 국회建設委에서한 무허가건물 陽性化관계보고에서『양성화의 기준은▲도시계획사업에지장이없고▲자기 대지상에있는 거주가능한 일정규모이하의 안전건물로서 소방도로에 접하거나 방화상 지장이 없을경우등』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이를위해 現「竣工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부터 바꿔 무허가건축물을양성화할것이라고말하고▲허가를 받아 違法施工한 건축물▲국가시책으로 건축케된 건축물▲양성화되지 아니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일정기준에 적합하게 시정케하고 시정하면 적법건축물로, 시정명령에 위반하면 처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개정되는 同法에 있어서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무허가건물및 허가를 받고 違法施工한 건축물로 하고 시정명령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을규정하여 전기·전화및 수도의 사용또는 공급을 중지하는한편 일정규모이상의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을양성화하는경우 과태료를 징수, 이를 무허가 건축물양성화사업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건축법을 개정, 위법건축물에 전기·수도·전화의 설치또는 공급금지규정을 완화, 양성화되지아니하는 무허가 주택등에 개별상수도등의 설치를 가능토록하겠다』면서『이2개의법개정안을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장관은 그러나『이에따라 신규무허가건물이 발생하고 투기를 목적으로하는 轉賣행위가 뒤따를수도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후『금년 5월1일이후 새로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단속을 강화하는한편 5월1일이후 轉賣입주자는 양성화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말했다.

이날 건설위에서 民正黨의 鄭東星, 民韓黨의 李重熙, 李洪培의원등은▲대형무허가 양성화는 부유층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양성화 조치가 도시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준공미필 대형건물까지 양성화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양성화대상이되는 무허가건물의 시별평수와 유형을 밝히라고 따졌다.

社會漫評

外患에다 內患에다…

地平線

존·휴스턴감독의 서부극으로 「황금」이란 영화가 있었다. 황금이라면 지옥에라도 뛰어드는 세사나이가 목숨을 걸고 채취한 砂金이 도적떼들에게 보통 모래로 오인되어 바람에 휘날리는 라스트신은 잊혀지지않는다. 요즘의 한강 사금캐기소식과 태풍에 얽힌 뜻그영화 생각이난다.▼바람하면 태풍을연상하고, 태풍하면 물난리를 근심하는것이 우리나라다. 다행히 이번에 우리나라를 가볍게 어루만지면서 지나간 태풍 「준」은 거꾸로 고맙기도하다. 오랜 봄가뭄끝의 태풍이라 점을 먹으면서도 은근히 기다리기까지한 것이었는데 일부지방에 작은 피해를 입혔을뿐 전국적으로는 모내기를 도와준 단비에 그쳤다.▼우리나라에 내습하는 열대성저기압인 태풍은 7、8、9월에 가장많고 그가운데 75%는 8월에몰려온다. 큰피해를 입히는 태풍의 풍속은 보통 초속50~60m로 남쪽엔 2년에 한번, 중부엔 4년에 한번, 북쪽엔 6년에 한번꼴이다. 7、8월의 태풍철은 장마철과 겹쳐 풍수해를 일으키기쉽다.▼6월이나 9월에 내습하는 태풍은 그리 흔하지않으나 엉뚱한 피해를 줄때도있다. 63년의 설리호는 이번의준과 같은 6월태풍이었다. 중심기압 9백90밀리바, 초속 12.5m로 반경 1백m안팎을 휩쓸었지만 제주남쪽에서 북동진하는 바람에 일부지방의 호우로 끝난것이다.▼우리나라를 괴롭히는 태풍은주로 열대 서태평양에서발생, 처음엔 서북방향,즉 중국대륙쪽으로 오다가 동지나해와 오끼나와근처에서 대부분 포물선처럼 방향을 바꾼다. 일본이나 중국내륙으로 상륙하는것이 많고 한국으로 오는것은 드물다. 태풍경보로 가슴이 철렁내려앉다가 대부분 한시름 놓는것도 이런 특성때문이다. 7월의 태풍은 서쪽에기울어 중서부해안을 강타하기 쉽고 8、9월에들면 동쪽으로 치우치는것도 우리나라태풍의 습성이다.▼59년9월의 사라호때는 남부지방을 휩쓸어때마침 추수기의벼나 사과같은 농작물과 도로、전답、가옥、선박등에극심한타격을줬다. 해방후 최대의 풍년이라던 영남의 곡창지대가 쑥밭이되고 인명피해만 사망7백81명에 부상3천명、실종2백6명, 이재민이 37만명이었으니 사라의 횡포를 알만하다.▼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겪는 태풍이다. 이번에 「준」이 큰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고 안심할것이 아니라 언제또 올지모를 태풍피해를 더 일찍 알아내고 피해를 줄일 대책을 바로 지금이라도 새로 세워야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43
은 : 온스당
US 9.3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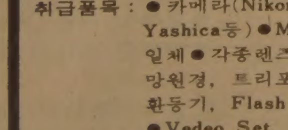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PIONEER
CAR+HOME
STEREO
각종 STEREO SYTEM.
Pioneer, Sharp, Hitachi,
$499～$3,000 이상의 고급품.
Receiver, Tapedeck, Turntable,
Audio Stand
각종의 스피커를 구비하고 있음.
카 스테레오, 각종 고급
카 스피커 취급함.
그외 고급 Cassette tape
야외용 Portable, Stereo도 구비하고
있읍니다.
HI-FI HOUSE
영업시간 : 10시－9시 ☎ : 633－2332
토 요 일 : 10시－6시
4544 DUFFERIN ST. UNIT 6
(휜치×더프린)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 카메라(Nikon, Pentax, Yashica등) ● Movie카메라 일체 ● 각종렌즈 ● 라디오, 망원경, 트리포트 영사기, 환등기, Flash ● 전자계산기 ● Vedeo Set, 카메라, 테프 전축바늘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트로피

CAROL'S
JEWELERY
& GIFTS
시내 MALL안에 있는 조그만 보석및 GIFT점입니다. 다이아몬드및 불로바·세이코 시계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무슨 종류의 보석(특히 다이아몬드)이든 최저가격으로 주문도 해 드립니다.
특히 시계, 보석수리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시계·보석 선물용 gift등 무슨 상담이든 환영하오며, 스페샬 가격으로
교민을 위하여 봉사코저
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 상 길 올림
345 BLOOR ST. E.
BLOOR & SHERBOURN에서
·약간 서쪽MALL안에
(GREENWIN SGUARE)
월～수 오전10시～오후7시
목～금 오전10～오후9시
토 오전10시～오후6시
B) 987－3449, R) 429－1392

보성 교우회
동문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총회 및 야유회를 갖고자 하오니 영원한 우정의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7월4일 토요일 11시
장 소 : SERENA GUNDY PARK
(써니부룩 공원 내)
※전가족 동반 점심각자 지참
보성 교우회
회장 심 용 웅

內務委 公職者윤리法案 간담회

財産등록은 公開해야

利權취급직책 규제당연

人權보장규정 필요、登錄은 本人 限定토록

生活保障우선·目的이외 利用금지制度化를

국회內務委는 23일부터 이틀간 예정으로 정부가 제출한 公職者倫理法案에 대해 各界의견을 듣는 공개懇談會를 진행했다. 2일간에걸쳐 발표·토론되는 各界를 대표한 8명의 主題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政治部註】

▲朴東緖(서울大행정대학원교수)=등록의무자의 경우 職級위주로 한감이 있으므로 조속히 利權이 큰 對民업무로서 故意性이 광범위한 직책을 선택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無記名으로 얼마든지 귀금속, 유가증권, 동산등을 구매할수있는 상황하에서 규제가 극히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없는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등록의무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등록하게 하는것은 公私분별이 의문시 된다. 등록기관은 감사원이나 司正담당기관에 하였으면 한다.

등록재산의 심사를 등록기관의 長이 한다고 하는 것과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한다는것은 공정성이나 民의 신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심사나 조사는 여러기관에서 합동으로 했으면 한다.

등록재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할 것이다.

▲徐 晟(서울地法부장판사)=등록의무자를 一定범위로 제한하고있고 대통령령으로 단계적 실시를 하게하였음은 적절하다. 운영성과를 보아 대통령령으로 非違에의 오염도가높고 윤리성이 특히 강조되는 職位를 추가함이 타당하다.

人權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하며 私생활의 보호와 관련지어 신중한 운영이 요청된다. 최초등록재산의 취득경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조치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權寧椿(국세청차장)=재산등록 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美國과 필리핀의중간형태를 택한것으로 보며 성실신고가 보장되고 행정간소화를 위한 것이다. 재산변동사항신고는 다른법률과 관련하여 신고기간을 변경하는것이 좋으며 개인별소득금액은 신고기간을 1월에서 6월이나 7월로 하는 것이 좋다.

◇23일하오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윤리법안 간담회는 主題발표자들과 내무위소속의원들간에 4시간동안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金重培(東亞日報논설위원)=불법 부당한 動·不動産의 수수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行政罰 또는 刑事罰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법을마련하는 이유는 윤리성에 호소하는 선언적효과에 있기때문에 대상은되도록 제한되어야하고 그절차 역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

물론 이법안이 私생활의 보호와 연좌제의 폐지등을 규정하는 헌법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헌법정신을 확대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등록의 대상은 본인 중심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굳이 이 법이 선언적 효과만을 갖는데 그치는것이 불만이라면 취업제한과 승인의 절차를 準司法化하는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공직자의 처우개선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부패의 억제이기 보다는 정치와 행정의 民主化이다. 民主化의전제는 동시에 부패의 억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계존비속으로 정하고 있는 는 뇌물과 정실로인한 公私를 구분하지못한 경우이며 이는 외국보다 그폭이 넓다.

직계존속으로 재산분산은 고울의 상속세부담등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권남용의 경우이다. 현재 만들어진 법률안은 주로 세째의 모델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잡성이 있으므로 이를 시행해가면서 보완해야 한다.

▲金泳鎭(中央大교수)=공직자의 부정부패에는 3가지모델이 있다. 첫째 … 국민생활에 직결되고 피부로 많이 느껴지는 첫째와 둘째의 모델을 겨냥한 立法이 보완되어야한다. 제정법률안에 나타난 주요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치가 필요하다.

재산등록 범위를 본인 배우자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해야한다. 착오가 없도록 가능한 최소범위로 한정한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자 범위를 5급까지 직급을 낮추고 대기업、學園、신문사등의 주요법인임원도 포함시키는등 개념을 확대하고▲방윤리행위개념에 국외재산、국내선물및 권력남용과 해외재산도피까지 포함시키고▲등록재산의 공개원칙이 적용되어야하며▲징계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무기한으로 하고 징계면직된자의 공직과 관련된 자격증도 박탈되어야한다.

▲金東煥(변호사)=공무원으로서 직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補職의 차이에 따라 등록의무의 有無등 구체적차이가 발생하는것은 부당하고 불편하다. 법안10條는 2년이라는 시한을 두고있으나 그 취지가 不明하다.

법정 分家하여 독립생활하는 비속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있는것은 불합리하며 다만 호적을 달리하더라도 동거하여 생계를같이하는 경우는 포함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의 경우 地上權, 傳貰權을 使用收益할 권리로 수정해야하며 地上權, 傳貰權은 등기할것이 요청되나 債借權은 같은 이익이있어 제외할 이유가없다고 본다.

▲申泰植(全經聯상무이사)=재산등록 의무자는 고위직공직자로부터 점차 확대하고 그 범위에 대통령·국회의원후보자와 對民접촉이 큰 관청의 근로자, 특수직공무원을 포함시켜야한다.

신고대상에서 직계尊屬은 제외시켜야하며 등록재산의 공개는 정치적 공무원의 재산만 공개토록 해야한다. 정치적 공무원은 대통령직속의 假稱 공직자倫理室을 설치, 담당토록하고 타 등록기관에 대한 총괄조정및 감찰기능을 부여토록 함이 좋을 것이다.

▲金重光(朝鮮耐火기획실차장)=특수직은 하위직급도 재산등록에 포함시키는게 좋을듯하며 등록재산 공개에는 一長一短이 있으나 장관급, 판 검사급, 국회의원등은 공개가타당하다.

등록기관의 長이 명실상부한 심사를 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으며 목적이외의 이용금지를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社說

그 慘劇 다시는 없다

—「6·25」31돌과 市民궐기大會의 뜻

오늘의 과제는 너무나 엄중하다. 잊지못할 6·25의 날— 그 31돌을 내일로 맞으며 먼저 이런 切實感이 앞선다. 특히 이번은 제5共和國의 새時代로 접어든 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날이기에 다시 한번 반드시 기록하고 체크하며 다짐해 둬야할 備忘사항이 유다른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아직도 分裂과 戰爭만을 꾀하며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거부하는 北韓집단의 反民族的 犯罪를 똑똑히 새기고 이를 배격·분쇄하려는 國民的 決意와 깃발을 높이 치켜세워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 反省의 回憶부터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 戰爭초기 우리는 어이없이 밀렸었다.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첫째는 北韓共産도당들의 侵略的 근성과 정체를 제대로 몰랐음이요, 둘째는 그에따라 奇襲南侵에 대비하는 태세와 힘이 缺如되었었으며 세째론 그런데도 정신차리지 못한 채 안으로 갈등·파쟁·허장성세를 일삼던 指導層의 잘못이 그으뜸가는 것이었다.

侵略者는 바로 우리들의 이無力·無防備상태를 공격해댔고 他民族보다도 더 무자비한 相爭을 자행해왔다. 그래서 南韓에서만 2백만이상·南北을 합치면 4백만명을 넘는 同族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되고말았다.

民族資本과 財産은 처참하게 깨졌다. 같은 겨레끼리의 敵對感도 보다 심해지고 남들의 介入으로 38선이 휴전선으로 變한채 3년간의 流血은 일단 멎었다. 때문에 民族의 自尊性이 크게 상처를 받았고 南北사이의 異質化현상도 심화하여 統一을위한 精神的·理念的 기초마저 금이가려는 참이다.

당시의 그侵略者·그敵은 오늘 여지 조금도 變함이없다. 그들은「제2의 6·25」를 준비하고 戰爭爆彈을 또 터치려는 온갖 策動에 광분하고있다. 軍事力은 30년전보다 對比할수없이 강대해졌다. 對南赤化목표와 侵略태세는 더욱 굳어졌다. 執權35년가까운 金日成의 暴君的 獨裁체제는 父子승계·共産世襲王朝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韓國에서 共産主義者가 대통령이 돼야 對話를 하겠다』는 따위 妄發마저 요즘은 거침없이 늘어놓고있다. 70년대의 對話술기를 모조리 다 嘲弄하고 싶지어 南北관계개선과 統一의 실질적 지름길을 밝힌 全斗煥대통령의「1·12」및「6·5」提議마저 교만하게 거부한채 안팎으로 反韓비방·중상·파괴활동과 挑發행위만을 계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용서하기 힘든 反民族的 戰爭再犯凶計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와 겨레의 平和的繁榮·統一을 영영 매장하고 武力赤化·暴力革命만을 고집하려는 소행일시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30여년래의 이 北傀망동을 과감하게 규탄하며 분쇄시킴에 주저치 말아야 하겠다. 다시는 그들 術策에 속는 일이나 무력해지는 일은 있어 안될 것이다. 80년대에는 하루빨리 그들의 못된 企圖를 꺾고 6·25와 같은 쓰라린 慘劇을 다시 겪는 일없이 平和와 統一의 열매를 기어이 爭取토록할 일이다.

韓國反共聯盟주최로 오늘 汝矣島에서 불타오를「北傀再侵凶計분쇄및 6·5提議수락촉구」市民蹶起大會는 우리 모두의 이런 決意와 課題를 뭉쳐 전진시키라는데서 뜻이 비상하다 하겠다.

그 現場에서 터져질 1백50만 참가자들의 意氣와 喊聲은 온 서울市民뿐 아니라 3천8백만 전국민의 한결같은 意思며 姿態일 것이다. 북녘으로 메아리지고 세계로 번져갈 이 궐기의 내면에는 뭣으로도 바꿀수 없는 우리 國民들의 부르짖음과 맹세가 철석처럼 짜리게 될 것이다.

그 첫째는, 다시는 6·25와 같은 北傀침략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는 명백한 대목이다. 그를 위해 안으로 힘과 自主性을 기르고 한결처럼 뭉쳐 反共安保의 前衛的사명을 다하려는 다짐이다.

6·25는 우리에게 反共·民主守護의 理念과 自主國防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부모·형제 자매·이웃들을 共産黨이 죽이고 自由民主를 사랑하는 나머지 滅共一念으로 싸운 先烈·先輩들의 거룩한 희생이 따랐음을 똑똑히 새겨주고 있다.

따라서 둘째, 對南赤化망상을 못버리는 北韓共産世襲독재체제는 이제부터 가차없이 대항하여 自由의 혜택이 1천7백만 北韓동포앞에 충렁이도록 적극 對應할 각오를 안할수 없다. 또 이를 延長, 民主統一의 국민적 목표를 확고히 인식하게도 될것이다.

셋째, 그統一을 줄기차게 平和的으로 추구하며 力量의 優勢로 상대를 對話場으로 유도케하는 進路앞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盡力할것을 또한 期約하는바 있을것이다. 全대통령의 南北韓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는 지금 6천만겨레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있다. 밖으로부터의 呼應도 뜨거워 이미 근 80개국이 肯定的평가를아끼지않았다.

警告는 이제 분명히 北韓집단을 向해 發해져야하겠다. 만일 再侵의 愚擧를 또 犯한다면 그들은 틀림없는 自滅이외 다른 운명이 있을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6·5提議를 지체없이 受諾하지않는限, 民族앞에 영원한 犯罪者로 烙印될뿐 아무런 得은 없을것이다. 內外로부터 指彈·糾彈의 怒聲을 면할길은 더욱 없게된다.

그러나 6·25는 北傀가 그리 호락하지않은 敵性집단임을 벌써 가리키고있다. 그 전쟁의 前世代든 後世代든 이한點은 깊이 銘刻해야하겠다. 또 그에따라 反共·滅共의 理念的챙볼과 自衛力을 비롯한 勝共力量및 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수없다.

특히 젊은세대들의 反共궐기와 분발이 제2의 6·25를 막고 새共和國의 民主的發展을 앞당기는 추진체임을 잊지는 말아야한다. 國軍에 대한 국민의 信賴感이 더욱 크게 부풀어있음은 물론이다.

80年代위한 文化政策

—投資와 効率을 함께 생각하자

앞으로 정부가 펴나갈 새로운 문화정책이 발표됐다. 李文公장관에 의하면 이 새문화정책은 3개의 정책목표를 내세우고있다. 창조적인 민족문화 계발과 문화혜택의 균형분배, 그리고 창조연구활동의 지원이다.

이러한 창기목표아래 5개항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놓고있다. 지금까지 당국이 밝혀던 정책내용에 비추어 이 프로그램에는 몇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눈에 띈다. 朝鮮朝시대史의 편찬, 박물관·미술관등의 문화교육기능강화, 6대문화권의 균형개발, 2백억원규모의 예술인 금고설치, 국립예술학교창설등이 우선 두드러진 개별적 프로젝트라고 할수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벗어나 이러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싶다.

그러나 80년대를 통틀어 내다보는 이런 장기정책설정에는 우선 짚고 넘어가야될 초보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둘 필요가있다.

그것은 문화예술활동은 고무신이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과 달라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니시어티브에의해서만 창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것이다.

이 정책이 못하고있는 인재양성이나 직업적 예술단체의 창설유도등도 이런 한도안에서만 그목적을 이룰수 있을것이다. 문화예술분야에대한 투자를 늘리고,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는 것은 두말할것도없이 바람직스런 일이다. 당국이 이분야에 새로운 의욕을 갖고 장기정책목표를 세운것은 반가운일이다.

그러나『행정기구의 합리적 조정, 문화예술관계법령의 개선 문화정책의 보완등』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도록 우리의 문화예술계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자면 최근 文壇이 두갈래로 갈라진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창조가 개인의 책임이라면 우리 문화예술계도 사회환경이 확대되는 만큼 근대화돼야할 것이다.

그 기본적인방향은 문화예술활동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참여하는 일종의「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볼때 문화활동의 기틀이라고 할수있는 출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내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지않을수 없다.

이번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급문화에대한 정책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문화활동을 두고 말할때 텔리비젼 같은 막강한 대중매체를 빼놓는다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는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문제에대한 장기적정책은 당국이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해야될줄로 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그것을 뒷받침할 돈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미 돼있는 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늘리는 방책을 찾는것도 중요하다는것을 지적해두고 싶다.

韓美經濟協議會

섬유·신발類·컬러TV등 對韓輸入규제 완화요청

韓美頂上회담의 합의에 따라 처음열리는 韓美경제협의회가 23일상오 중앙청제1회의실에서 盧信永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한 16명의 한국측대표와 라시美국무성 경제담당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美側대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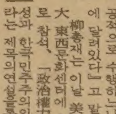
이날 상오 전체회의에 이어 하오에 各분야별로나누어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측은 최근 오랜景氣침체에서 回復하기 위해 美國에 한국産 섬유, 신발류, 컬러TV등에 대한 對韓수입규제를 완화해줄것과 對美수출품목에대한 미국의特惠關稅(GSP)축소및 규제완화조치를 美측에 요청했으며 기술이전과 제3國공동진출을위한 양국간의 협력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측은 특히 양국의 경제협력이 安保차원에서 보다 巨視的으로 이뤄져야하며 對韓에너지공급을 위한 협의체구성과 한국의 重化學공업육성을 위한 금융시장에서의 民間차관도입에 적극협력해줄것을 요청했다.

한국측은 또 지난 79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韓美상공장관회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요청했으며 美側은 원칙적인 찬의를 보였다고 한국측 관계자가 전했다.

"7년후 평화적 政權교체 현政權의 公約 注視"

柳民韓총재、하와이大서 演說



◇柳致松民韓총재

【호놀룰루=崔甲植支局長】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3일 하오『현 한국정부는 舊惡을 일소하고 필요한 정치개혁을 할수있는 아주 유리한입장에 있으며 또 新政權의 장래는 그들이 공약한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柳총재는 이날 美國하와이大 東西문화센터에 초청연사로 참석,「政治權力의 정당성과 한국민주주의의 장래」라는 제목의 연설을통해 이같이 밝히고『현행헌법은 新政權의 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까지 정치적 황무지였던곳에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울수 있을것인가 또는 과연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7년후에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주의깊게 감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新政權이 남긴 병폐를 철저히 배제하고 그에따라 필요한 과단성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새시대」는 또다른 하나의「舊시대」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公職者 倫理法案 간담회

국회內務委의 公職者倫理法案심의 6人小委(위원장 柳尙羹의원)는 23일하오 공개간담회를 갖고 朴東緖(서울大행정대학원교수) 徐晟(서울地法부장판사) 金重培…

人事異動

▲서울韓國鐵道廳 ▲鐵道局旅客課長 李… ▲中央補給廠長 金… 〈調達廳〉 ▲韓培成 ▲중요물자국장 李在勳 ▲外資국장 權五彦 ▲京畿支廳長 … ▲慶北支廳長 宣洪… ▲中央補給廠 金榮鳳 〈韓國放送公社〉 ▲春川放送局長 邊… ▲濟州〃 吳吉雄 ▲放送審議委員 金湖英

▲南原放送局長 鄭俊基 ▲春川放送局事務課長 … ▲敎育1部長 … ▲敎育2部長 徐炳善 ▲藝能1局R·藝能1部長 … ▲敎育1局R·敎育1部長 … ▲放送審議室 … ▲大邱放送局技術部長 … ▲企劃委員 崔謙浩 ▲表學昌

〈畜協〉 ▲河東組合長 鄭一相 ▲江陵〃 … ▲扶餘〃 … (23日字)

本社來訪

▲姜映淑씨(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女性代表副議長) ▲李相熙씨(社團法人禮智院長) ▲韓瑞澤씨(山林廳) ▲宋明燮씨 ▲…(綜合建設株式會社專務理事)

創造的 民族문화 80年代의 靑寫眞

無形문화재 保存·傳承 역점

기구整備·財源확보 英才교육

이날 발표된 80년대에 추진할 새문화정책은 우리의 뿌리를 찾아 문화적인 주체성과 민족사의 정통을 확립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이번에 경제우리나라는 70년대에 … 민족·복지·정의사회에 바탕으로 한 새시대 역사창조에 부응하기로 …

【李忠雨기자】

政局往來

"大型 위법건물 플라자호텔外는 없다"

◆民正간부들, 長官출석 要求 … 23일상오 중앙당사에서 열린 民正黨 간부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常委에서 빚어진 長官출석 문제가 거론되었다.

◆野黨당수로 3번째로 하와이大연설 … 民韓黨총재 柳致松씨가 23일 하와이大 東西문화센터에서 연설 …

◆공개懇談會… 사실상公聽會 … 23일하오 국회內務委의 公職者倫理法案 공개간담회는 4명의 초청인사와 6人小委 …

뉴TV한국프로 렌트 아세일

. 이곳 카나다 토론토 선미광고에서는 국내방송관계 기관 및 비디오업계의 협찬으로 전 미주지역에 최다수의 필림을 가지고 멀어져간 우리들의 전통과 예술, 연극은 물론 우리 언어를 배우는 2세를 위한 프로그람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져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표 구본무

● 국내연예프로(교육 및 언어) ● 국외연예프로(한국어)

전설의 고향
학녀, 삼총지도, 정승꽃 대감, 조강지처
T. V. 문학관
뻐따라기, 청산댁, 삼포로 가는길, , 모밀꽃 필무렵
영화
알개전, 낙도 무지개, 이소령의 전설, 여인의 타국, 사랑의 계절, 돌아온 미소 돌싱호, 임행어사, 사랑
일요 드라마
불어라 봄바람, 유모어 극장, 부부 소망, 한국의 미 우리들의 광장, 일요 토론, 배명,
어린이 프로
만화 동산, 고양이와 생쥐, 15소년의 표류기, 우주 전함 태극호, 모험 소년, 우주전함
백분 쇼 5편:
5천만의 대행진 5편
젊음의 행진
추적
고향이 부르는 소리 여울의 소리 얼어붙은 강

● 닥터 지바고 상하 4시간 ● 레미제라블 상하 4시간 ● 죽음의 조수 ● 리틀 다아링 ● 록키 ● 빼르린 위기의 탈출 ● 디어 헌터 상하 4시간 ● 선사인 ● 티파니에서 아침을 ● 유리아나의 기적 ● 카우 보이 ● 소문난 형사 ● 꿈나라 ● 타잔 ● OK 목장의 결투 ● 로메이든 아더빈치 ● 80일간의 세계일주 ● 시실리안 ● 독수리 작전 ● 마님의 복수
● 리오의 사나이 ● 마징가 젯트(어린이용) ● 엄지 공주(어린이용) ● 미녀와 협보원 ● 전쟁과 애욕 ● 집없는 천사 ● 차이나 걸 ● 600만불의 사나이 ● 형제 ● 형사 ● 마야의 전설 ● 세계의 서커스 ● 과서지에서 생긴일 ● 네바다 스미스 ● 리오라보 ● 와이덜 ● 7인의 신부 ● 죄와 벌 상하 4시간 ● 007 ● 운전명과 박보희 총재의 증언
MTV CH 47에서 방영된 연예프로 다수

善美廣告 454A BLOOR ST. W. TORONTO MIDOPA 31 B. 416-531-6430 R. 416-746-3712

IATA

월부적금제 실시
(푼돈 모아 목돈으로 여행 가능)
●서울단체 매일출발 CPA, KAL, JAL
여름철은 붐비니 미리왕복예약하십시오.
●이민및 방문초청상담, 초청장 작성
●동남아 각처 단체요금
●월부및 각종 크레딧 카드취급
●저렴한 국내선 SKYBUS및 SEAT SALE
※ 모국방문산업시찰단모집 : 9월27일 출발
(3박4일 산업시찰 포함)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김창범 536-2155·2156 (R) 429-7580

中·印 20년만의 和解

—黃華가 「충돌國境」을 넘어간다

◇눈덮인 히말라야山中·印국경지대를 순찰하는 인도국경수비대원들.

네루前인도수상은 60년대 재임시 「인도와 중공은 형제」라는 구호를 [illegible] 행할만큼 양국관계는 돈독했다. 7억과 9억이라는 인구도 그렇지만 오랜 문화를 보나 땅넓이로나 양국은 대국을 자칭하며 서로를 부추기는 사이였다.

그런 양국이 62년 국경충돌을 고비로 적으로 맞붙은지 20여년. 인도는 친소일변도로 돌아섰고 중공은 인도를 「소련의 封臣」이라고 헐뜯는 양국관계가 계속되더니 지금은 화해를 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한듯 중공외상 黃華가 오는 26일 뉴델리를 찾아갈만큼 급진전을 보이고있다. 이번 黃華의 나들이는 지난60년 수상 周恩來이래 중공고위관리로는 실로 20년만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49년 10월 중공정부가 수립됐을때만해도 인도는 중공을 승인하고 앞장서서 중공의 유엔가입을 지지했다. 네루수상은 뒷날 『새로운 중공정부는 안정된 정부이며 여기에 대항할수있는 세력은 존재할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당시의 사정을 회고했다.

54년6월 네루와 중공 周恩來수상은 상호주권존중과 불가침등을 골자로한 소위평화5원칙에합의했고 이어 네루수상이 중공을 방문함으로써 밀월관계는 절정에 달했다.

다음해 열린 반둥회의에서 손을 잡은 네루와 周恩來는 제3세계운동의 동반자로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거기에서 중공과인도의 밀월은 일단락됐다. 62년 국경분쟁의 비참한패배와 함께 네루의 이미지도 몰락했고 적의에 찬 인도는 경제발전을 희생하며 군비를 증강하는 한편 소련과의 우호에 박차를 가했다.

인도가 비동맹중립을 내세우면서 소련에 밀착한 것은 중공의 적인 소련을 끌어들임으로써 중공을 견제하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71년 인도는마침내 소련과 20년 우호조약을 체결, 중공 파키스탄에 대한 대항의도를 굳건히했고 미그, 탱크등 수십억달러상당의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사들였다.

그러나 양국은 이제 20년간의 불화를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수립을 원하고있는게 분명하다.

서로가對峙에 큰負擔感 經濟발전에의 轉用바라

60년 周恩來이후 처음…간디訪中뒤따를듯

◇黃華외상

현재의관계가 서로에 득이 될것이없다는 계산에서온 당연한 실리추구인 것이다.

중공의 입장에서볼때 남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등 소련세력에 둘러 싸인 형편에 인도와의 불화해소는 절실한 과제이다.

특히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후 길게형성된 남쪽의 포위망을뚫고 소련세의 남하를 저지하는 방법은 인도를 소련과의 밀착관계에서 떼어 내는길 뿐인것이다.

인도 역시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 20년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있다.

중공은 62년 쉽게 아셈제국까지 침공할수있었지만 67년 소규모분쟁시는 인도군은 70명이 희생된데반해 중공군은 4백명을 잃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인도는 74년 라자스탄사막서 핵폭발실험에성공,核을 소유한 군사대국이 되었다. 또 전같으면 인도를 거들떠보지않던 중공의 잡지들에 중공·인도의 경제를 비교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게 된것도 중공이 인도의성장을 인정하고있다는것을뜻한다.

중공은 인도와 평화관계를 이룬다면 총연장 4천㎞에달하는 두나라 국경에 배치된 병력을 소련국경으로 이동, 對蘇방어를 강화할수도 있는 것이다.

또 친소노선으로 너무 기울어져 미국과 제3세계의 호감을 잃어가고 있는 간디인도수상의 입장에서도 제3세계의 보호자격인 중공에 접근할 필요를 느꼈을것이다.

일부 비동맹국은 인도의 비동맹성에 의문을 제기, 제3세계의 힘이 커지는 국제무대서 인도의 발언권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태가 진전된다면 인도는 막대한국방비를 경제발전에 돌려 사용할수 있는것이다.

여기에 鄧小平, 趙紫陽의 중공수뇌진과 간디수상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이 어떤 타협을 필요로 하고 있는것을 주시해야겠다.

◇밀월시절의 周恩來 중공수상(左)과 네루인도수상.

지난주 중공 趙紫陽수상이 이달들어 이미 네팔,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던 이유는 중공이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더라도 어떤 희생을 주지 않을것이라는 걸 재확인시켜주려는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분석하고있다.

趙는 이방문에서 이지역의 강국인 인도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印·中共 현안의 일괄타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상황에서 黃華외상의방문은 큰 기대를 걸수 있을것 같다.

지난4월 鄧小平을 만나고 온 인도·야당자나타당의 지도자 스와미씨는 26일로예정된 黃華의 방문중 양국국경문제해결 공동위원회 구성등 중대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黃華가 방문중 간디인도수상에게 중공을 방문토록 초청할것이 확실하며 양국관계는 우선 문화협정부터 체결, 교수, 언론인, 기업인, 문화사절등의 교류부터 시작할것이라고 예견했다.

중공은 이미 인도의회대표단의 北京방문을 초청했고 인도로부터도 곧 호의적인 반응이 나올것이다.

지난12일 끝난 인도와 파키스탄의 외상회담도 인도－중공관계정상화에 앞선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볼수도 있을 것이다. 중공의 지원을 받아 인도를 견제해온 파키스탄의 위치는 양국의 화해에 앞서 필수적으로 다뤄져야할 선결문제이기 때문이다. 【金英根기자】

이란 새強者로 浮上한 모하메드·베헤슈티

얼굴

【테헤란22日聯合】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직에서 해임됨에따라 이란에서 가장강력한 정치거물로 부상한인물은 이란대법원장 모하메드·베헤슈티(52)이다.

엄한 얼굴에 예언자 모하메드의 [illegible]을 [illegible]리는 검은터번을 두르고있는 베헤슈티는 언젠가 한 회견에서 자신이 이란人들이 말하는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인물은 못된다고 자신을 낮췄지만 이란국민들은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해임된 배후에 그가 도사리고있음을 너무나 잘알고있다.

◇베헤슈티

回敎 共和黨首겸한 호메이니의 오른팔

막강한 권력은 그가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와 입법·사법·행정부를 지배하고있는 회교공화당(IRP)당수라는 2개의요직에서나오고있다.

여기에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해임은 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감투를 씌워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앞으로 50일 이내에 새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하는 중요임무를 맡은 3인위원회의 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 3人위원회는 이라크와의 전쟁및 국내소요사태등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지못할 가능성이 많아 그만큼 회교정통파주축세력인 3인위원회가 권좌에 남아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보고있다.

『박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베헤슈티는 어느모로보나 회교혁명의 와중에서 정계에부각되기 시작한 가장 수수께끼에 싸인 회교성직자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故팔레비前왕이 79년1월 몰락하기전 5년간을 서독 함부르크에서 살면서 함부르크 이란인사회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다. 그후 프랑스 노플르·르샤토에서 망명생활을하던 호메이니옹의 오른팔역할을하면서 호메이니옹의 금의환향후에 정계 강자로서의 지위를굳혔다.

이란, 선거는 向後50일 이내

3人委서 大統領직무수행

◇라프산자니

◇알리·라자이

【테헤란·베이루트22日AP AFP=聯合】이란회교정부의 온건파인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해임에 따라 22일부터 모하메드·베헤슈티 대법원장, 모하메드·알리·라자이수상, 하세미·라프산자니 국회의장으로 구성된 3인위원회가 공석중인 대통령직무를 잠정 수행하게되며 회교헌법 31조에의거, 앞으로 5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이란, 또 6명處刑

【테헤란23日AFP聯合=聯合】이란은 지난 22일밤 또 6명의 좌익분자를 총살형에 처함으로써 최근 축출된 바니·사드르 전 대통령을 지지하다 처형된 사람은 모두 29명에 이른다고 테헤란방송이 보도했다.

"美·日·中「3角동맹」構築노려"

蘇국방상 "새로운 世界大戰음모획책"

軍備경쟁에 不滿토로

"균형위협세력 看過하지않을터"

◇사드르彈劾결의하는 이란議會 이란議會 의원들이 21일 행방을 감춘 바니·사드르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기위한 탄핵 투표를 하고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최고통치자인 호메이니옹이 22일 바니·사드르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전했다. 【테헤란22日AP電送=聯合】

【모스크바22日AP=聯合】소련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는 22일 『제국주의자들이 새로운 세계대전의 음모를획책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우스티노프는 이날짜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에 실린 기사를 통해 『워싱턴의공격적인 전략과 궁극적으로 미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달성하려는 반동세력에의해저질러지고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군비경쟁』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소련의 군사적위협을 빙자하여 『제국주의자들이정신없이 날뛰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소련을 공격하기위한 『반소모략, 중상캠페인을 벌이고있다』고 비난했다.

우스티노프는 美행정부가 워싱턴·北京·東京을 잇는 3각군사 동맹체제를 구축하려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소련이 세계의 核전략및 군사적 균형을 위협하려는 세력에대해 눈을 감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소박한 감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국주의국가 정치인들이 반소정책에 중공을 끌어들여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전포고없는 전쟁을 벌이게하고 새로운 對베트남전쟁을 충동질하여 이익을 얻고있다면서 『미국의 압력아래』 영국과 서독도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니·사드르, 이란脫出說

터키經由 프랑스나 西獨으로 亡命

英BBC、TV보도

【런던22日AP=聯合】이란당국의 추적을 당하고있는 아볼하산·바니·사드르前이란대통령은 23일 이란을 탈출, 터키를 경유하여 프랑스나 西獨으로 망명할 것이라고 英國 BBC·TV방송이 22일 보도했다.

BBC는 이날 서독에 망명중인 이란언론인 이라즈·라바씨와의 대담을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는데 라바씨는 바니·사드르 전 대통령이 현재 테헤란남동쪽 약 4백㎞에 위치한 하마단市에 은신하고 있으며 그는 23일 이곳에서 헬리콥터편으로 약 5백㎞떨어진 터키로 탈출할것이라고 말했다.

軍部반대파 懷柔나서

中共지도층 "黨을떠나 存在할수없다"

【北京22日UPI=聯合】중공지도층은 22일 중공의 정치적장래를 결정할 당중앙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군부반대파에대한 마지막 회유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당정치국원겸 군총정치국주임 韋國淸은 이날 당기관지 人民日報에 이례적으로 대서특필된 기고기사를통해 『당의 지도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당을 부인하고는 국가와 인민및군의 장래는 생각할 수도없다』고 강조하면서 『군은 마땅히 당의 지도력에 절대 복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韋는 당의지도노선에 충실히 복종해온 인민해방군(中共軍)의 전통을 상기시키면서 『당이 어떠한 방향을택하던 우리는 그 방향으로 돌진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이 과거 실수를 범한적이 있다는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당은 과오를시정할수있는 자체능력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韋의 논조는 반대파에대한 위협보다는 설득조가 더짙어 군부내반대파에대한 현당지도층의 회유노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華國鋒 사표제출

【北京23日AP聯合=聯合】중공당주석 華國鋒은 2주일전 사표를 냈으며 현재 열리고있는 제11기 중앙위 6차전체회의(6中全會)에서 華는 경제정책에 대한 과오를 비판 받고 당주석자리에서 축출될것이라고 외교소식통이 23일 말했다.

佛共黨入閣확실

社會·共產黨 정치적합의

【파리23日AP=聯合】프랑스의 집권 사회당과 공산당은22일 공산당원의 입각문제를 놓고 장시간 협상을 벌인끝에 일단 정치적 합의에 도달, 공산당 입각의 길을 열어놓았다.

공산당 중앙위서기 샤를르·피테르망은 23일 새벽2시30분(현지시간) 7시간에걸친 社會黨대표단과의 회담을 마친뒤 『양당대표단은 정부의 공동정책에 관해 토의했다』고 밝히고 각당대표단은 토의결과를 자당의 정책결정기구(공산당은 중앙위·사회당은 집행위)에 각각 보고할것이라고 전했다.

공산당과 사회당은 이날의 대표자회의결과를 심의하기위해 23일상오 각각 중앙위와 집행위를 소집할 예정이다.

教皇 늑막염

熱내리고容態好轉

【로마22日UPI=聯合】계속적인 고열로 로마의 제멜리병원에 재입원한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늑막염을 앓고 있다고 바티칸 교황청이 22일 밝혔다.

교황청수석공보대변인인 로메오·필치롤리신부는 이날 제멜리병원에서 교황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과 면담한 뒤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38도까지 올랐던 고열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伊、社會黨勢 신장

地方선거서 3% 증가

【로마23日AP=聯合】이탈리아 사회당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총유효투표의 13%를 획득, 지난번 선거의 10%에 비해 괄목할 만한 당세 신장을 보였으며 이에반해 최대정당인 기민당과 공산당은 득표율이 크게 떨어져 퇴조현상을 보였다.

海外토픽

離婚40年만에復活

★스페인 50만쌍에 喜消息

스페인의회는 22일밤 가톨릭교회와 집권당인 민주중도연합(UCD)내의 기독교민주당 계열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故프랑코총통이 폐지했던 이혼법안을 1백62대 1백28로 가결, 이혼제도를 40년만에 부활시켰다고.

이번안의 통과로 이혼법안은 내달부터 효력을 발생하게되며 늦어도 금년 여름까지는 특별법원이 설치돼 그동안 이혼소송을 해왔던 50만쌍의 이혼소송을 다루게될 계획이라는것. 【마드리드=聯】

性기능장애 논의

★예루살렘서 섹스學대회

세계 섹스학대회가 聖都 예루살렘에서개막돼 작금 성문제를 토의. 미국의 기혼남녀들은 적어도 2분의1정도가 상당한 성기능장애및 성적부조화를 겪고있으나 이의 치료를위해 병원이나 전문가를찾는사람은 극소수에불과하다고 美매스터즈·존슨 성연구소의 윌리엄·매스터즈박사가 이회의에서 공개.

성전문가 8백50여명이 참석한 제5차 세계성과학회의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회의같은 기회를 통해 적절한 처방을 얻으면 성기능장애와 성적부조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 【예루살렘=UPI】

◇파라솔과 美女들 프랑스의 파라솔業者聯盟主催의 새파라솔 商品선전에 나이트클럽 크레이지 호스사론의 美女3명이 모델로 나섰다. 【키스톤=聯合】

오늘의 歷史

▲美 작가 펄·벅 출생 (1892)
▲蘇, 대기업의 國有化 단행 (1920)
▲50개국대표, 유엔헌장에 조인 (1945)
▲세계상이군인의날 첫실시 (1945)
▲金九 피격, 절명 (1949)
▲英領 소말리랜드 독립 (1960)
▲유엔, 非核會議에 中共초청 (1968)
▲간디 印首相, 비상사태 선포 (1975)
<26일>

메아리

어느 어머니

군경미망인회가 올해 3회째의 장한어머니상 수상자로 뽑은 전남진도군진도읍남동리 박종금씨(70)의 이야기(한국일보6월23일자10면)는 해마다 퇴색해가는 느낌인 6·25의 자취를 또 한번 생생하게 일깨워준다.

박씨의 피맺힌 가시밭길은 6·25가 난지 한달이 못되는 그해 7월21일부터 시작이된다. 부농의 8남매중 둘째딸로 태어나서 넉넉한 약종상의 아내로 단란을 누리며 슬하에는 8녀1남을 두고 살았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도 공산군의 총부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다. 소방대장이던 남편 조규남씨는 30명의 대원과 함께 공산군과 싸우다가 전사했고 박씨는 그날로부터 고령인 시부모를 비롯한 12명 대가족의 가장으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게 된다.

동란중이나 또는 종전후의 그 기나긴 세월을 여자손 하나로 외아들을 군의관으로 길러내고 여덟 딸들에게 모두 고등교육을 시켰던 모정의 거룩함은 새삼 이를 나위도 없다.

박씨는 「내가 고생한것은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그만이지 어디 세상에 내 놓을 일인가」고 겸손했다고 한다.

짐승의 먹이나할 쌀겨로 연명도 하고 품팔이·소금장사·미역장사·삯바느질등등 도둑질 말고는 다해보았다는 박씨의 어려움과 배아픔은 짐짓 6·25가 아니었던들 겪지않아도 좋았을일이었다.

박씨와 같은 고난의 길은 모든 전쟁미망인이 거닌 공통의 길이다. 다소의 차가 있을지라도 하늘처럼 믿고 섬기던 낭군을 여읜 슬픔도 가슴아픈데 이에 곁들인 미망인생활의 외롭고 고달픔이란 어찌 말로 다할것인가.

영과 육을 함께 고난의 자취도 박씨의 경우처럼 아들·딸들이 훌륭히 자라서 그보람으로 보상을 삼을수 있다면 좋은 위안이 되겠으나 그도저도 아니고 실의와 회한과 눈물만남은 경우가 더 많을것임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는듯 하다.

6·25는, 그리고 그 추억은 날마다 멀어져 가며 또 바래져 가는데 그때 그 선지빛 상처는 아직도 전쟁미망인과 상이용사, 또 유자녀들의 가슴속에서 선연하다.

해마다 맞고 보내는 6·25지만 우리는 또 전쟁을 도발했던 공산수뇌의 만행과 그로 말미암은 아픔을 저버릴길없어 국방태세를 날로 튼튼히 가꾸어야 하겠다.

YMCA어머니교실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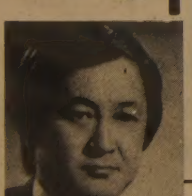
YMCA여름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들을 위해 미용체조·신체적성운동·기타강습·수영강습·요리강습등을 즐기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십시요.

기간 : 6월29일~8월21일 매주월~목요일 오전9시반~11시반
곳 : YMCA및 Winona고등학교
지도 : 김용순선생·권혁일선생외

YMCA여름학교 학생모집

기간 : 6월29일~8월22일(8주간)매월~금요일 오전9시~오후3시반
곳 : Winona고등학교(St. Clair와 Christie 서쪽 Winona)
과목 : 한글·무용·한국노래·바이올린·피아노·수영·운동·미술·태권도·한국역사등(매금요일은 견학또는 소풍)
모집인원 :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 약 100명
학교버스 : 3대의 학교버스가 운영되며 형제가 여러명이면 할인이 있음.
문의나 신청은 536-1166 미스터 김
15 ROBINA AVE. TORONTO, M6C 3Y4
토론토한인YMCA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매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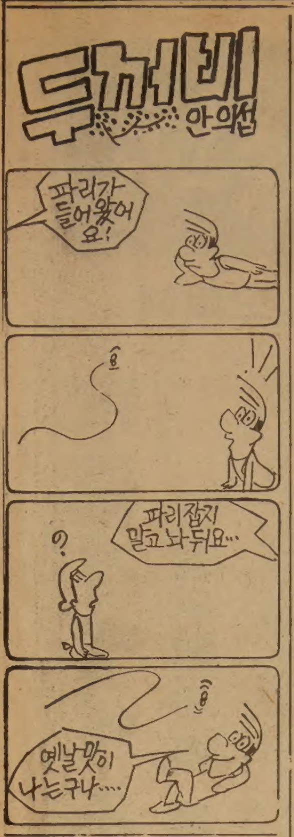
토론토시

도미니온데이(수) 1981년7월1일
신문지와 부피있는 물건 수거

7월1일(수) 도미니온 공휴일에는 신문지및 부피있는 물품들(냉장고, 소파, 매트리스, 나무, 잡목등)은 수거치 않는다. 신문지나 부피있는 물품은 7월8일(수) 수거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주의사항 : 토론토에는 19군데의 병과 쇠붙이 등을 재생시키는 장소가 있다.

문의처 : 367-7742
R. M. BREMNER, P. Eng., F. I. C. E.
건설국장



無認可 神學校 1백10개 폐쇄

在學生은 修了때까지 수업

1敎團 1校원칙, 7개校만 認可육성

정부는 23일 무인가신학교 1백17개교중 1백10개교를 폐쇄하고 나머지 7개교(대학1개, 4년제 각종학교 6개교)만을 정규학교로 인가, 육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교부는 1백17개 무인가 신학교중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해온 63개교를 대상으로 심사끝에 ▲[illegible]연합신학대학(초교파·京畿[illegible]) ▲天神신학교(聖公會·서울九老區) ▲하나님의 교회신학교(오순절 하나님의 교회·서울九老區) ▲루터신학교(루터교·京畿도廣州) ▲구세군사관학교(구세군·京畿도 果川) ▲[illegible]나사렛신학교(나사렛교·忠南天安) ▲순복음신학교(하나님의聖會·京畿도始興) 등 7개교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학계학교는 기존학교27개교(대학15개, 각종학교12개교)를 포함, 모두 34개교(대학16개, 각종학교18개교)로 늘어나 전체대학과 정학교 1백10개교(대학90개, 각종학교20개교)의 31%에 이르게됐다.

문교부는 이날 신학교인가 심사에서는 우선 시설확보계획이 구비된학교를 대상으로 1개교단에 1개교를 원칙으로했으며 세계적으로 공인된 교단파 초교파에 한정시키고 기존인가학교가있는 교단은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81학년도 신입생모집 금지조치를준수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한편 문교부는 정비될1백10개 무인가신학교에 8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 이들에게는 수료할때까지 교육을 계속토록하며 잔존학생의 수료와동시에 폐교조치키로 했다.

문교부는 또 무인가신학교 정비를 계기로 인가신학교에 대한 육성책도 수립, 앞으로 교역자의양성이나 수급상 필요성이 인정될때는 학생정원을 대폭증원해주고 교육시설의 확보나 확장을 위해 저리융자 또는 해외차관을알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무인가 신학교는 교파별로 ▲장로교85개교 ▲감리교 10개교 ▲침례교 5개교 ▲오순절교 8개교 ▲성결교 1개교 ▲기타 8개교가 난립해 기존인가신학교 27개교의 4·3배에, 학생수에서도 1·6배나 되는 1만2천1백16명이었다.

단기下士 豫備軍동원연령

35歲서 30歲로 낮춰

내년 1월1일부터

국방부는 23일 내년1월1일부터 단기하사출신 예비군은 30세이하만 동원훈련을받고 31~33세는 일반교육훈련을 받게되며 34~35세가되면 일반교육도 면제, 연 2회의 소집점검만을 받으면 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병장이하 출신의 예비군은 30세까지만 동원훈련에 참가했지만 단기하사는 35세까지 동원훈련을 받아왔다.

국방부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민정당의 요청에따라 당정협의회의전의를 거친 예비군복무불균형시정책으로 취해진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22-5534 66-5566 35-5566 73-6634 97-[illegible]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不法武器 강력단속

내달부터, 소지자엔 法定최고刑

내무부는 7월1일부터 불법무기류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 색출된 소지자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2개월에 걸친 불법무기류자진신고 기간이 오는6월말로 끝남에따라취해지는것이다.

한편 그동안 신고된 불법무기류는 총기류가 권총(1백56정)、소총、엽총、공기총(1천4백73정)등 모두 1천8백36정에 달하며 폭발물류는 포탄、수류탄、TNT등4만3천73발이 회수됐다.

將兵에 위문품전달

新聞協會 회원

한국신문협회 회원 15명은 23일 陸本 보도실장의 안내로 육군제52[illegible]3부대를방문, 병영생활에 필요한 비닐장판(1천2백㎡)、흑판(65개)、한글타자기(5대)、[illegible](5대)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철책선과 초소、내무반을 돌아보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한 인사는 다음과 같다. <사진>

▲文胎甲(서울신문사장) ▲洪惟善(한국일보발행인) ▲方又榮(조선일보사장) ▲全達出(대구매일신문사장) ▲金相琪(동아일보사장) ▲李鍾基(중앙일보사장) ▲鄭九鎬(경향신문사장) ▲權五賢(부산일보사장) ▲[illegible]世永(대전일보사장) ▲朴[illegible] ▲朴[illegible] ▲金[illegible]太(광주일보사장) ▲安[illegible](충청일보사장) ▲李中[illegible](경기신문사장) ▲徐[illegible](전북신문사장) ▲崔永定(신문협회사무국장)

6·25가 따로없다 방심하면 6·25다

本因坊4局 열려

趙名人、富利위주

【東京23日=宋[illegible]특파원】파죽의 3연승으로 타이틀쟁취 일보직전의 趙治勳名人이 도전하는 제36기 本因坊戰(每日新聞주최) 도전7번기 제4국이 23일상오9시 이시까와껜(石川縣)나나오市(七尾)가가야호텔(加賀屋)에서 개막됐다.

颱風준 소멸

제5호 태풍준은 22일하오9시께 일본 규슈북부지방에 상륙한뒤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해 우리나라는 이에따라 풍권내에서 벗어났다.

중앙관상대는 이에따라 23일 자정을기해 남부일원과동해남부지역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해제한데이어 이날상오9시를기해 남해및 동해에 발효중인 태풍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철새들의 樂園이 「死刑場」으로 둔갑

최대의 到來地 강원 襄陽郡…白鷺·왜가리등 떼죽음

논망친다고 農藥 마구뿌려

급성中毒…하루 10여마리 쓰러져

【강원襄陽=金[illegible]기자】우리나라최대의 철새도래지에서 백로(白鷺)·왜가리등 철새들이 떼죽음을 당하고있다. 농약에 중독돼 무더기로 죽어가고있는것이다. 문제는 이철새들이 농약에 중독된 먹이를 먹고 간접적으로 오염된것이 아니라는데있다. 철새가 논에 접근하는것을 막기위해 논에 과다하게 농약등을 뿌려놔 현장에서 급성중독돼 쓰러지고있는것이다. 이대로가면 철새들이 전멸한날도 멀지않았다. 농약으로라도 철새를 퇴치하는것이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것인가. 그농약덩어리속에서 자란 벼를 또 누가 먹는가. 황폐화하는 이나라의 자연이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이농약화는 너무 잔인하고 쇼킹한 「살육의 현장」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대책은 없는가?

◇임시病院 재빨리… 농약에 중독된 백로 10여마리중 3마리가 치료중이며 5마리는 대기중이다. 일단 회복된 3마리는 간이보호소에수용돼있다. 【22일상오 縣南중학 백로·왜가리수용소에서】

縣南中교사·학생들 診療所설치 救命작전

강원 襄陽郡 縣南面浦梅里일대는 매년3월이면 3천여마리의 백로떼를 비롯 왜가리등 각종철새가 몰려 집단서식하는곳으로 강원도 당국이 철새도래지229호로 지정한 철새보호구역, 이곳이 「살육장」으로 돌변한것은 2~3년전부터로 철새들이 인근논으로 몰려 먹이를찾아 막뿌리를잡은 모포기를 짓밟자 농민들이 논 기장자리에 살충제와 농약등을 대량살포, 철새들이 급성중독을 일으켜 하루에도 10여마리씩 쓰러지고있는것.

이를보다못한 인근중학생들이 백로보호에나서 올해만도 70여마리를 살려냈다.

당국이 철새도래지로 지정만할것이 아니라 철새들의먹이를 따로길러 농작물과함께 철새를 보호할수있는 대책이 마련돼야할것이라는 현지주민들의 의견.

22일 하오에도 이곳 일대에서는 농약에중독, 혼미상태에서 소나무나무가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있던 백로와 왜가리들이 갑자기 전신에 힘을잃고 잡초 위로 툭툭떨어져 몸통이를 아무렇게나 쑤셔박고가쁜숨을몰아쉬다가 죽는모습을발견할수있었다.

군당국 집계에따르면 浦梅里 송림의 백로등철새떼들은 매년2백마리 가량씩 죽었고 그중 절반정도가 농약중독사인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중독사가 최근들어 급증한이유는 지난 70년초부터 이송림을 찾아오는 백로등철새의숫자가점점늘어나 인근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철새의접근을 막기위해 논 가장자리에살충제, 제초제등 농약을과다히 뿌려놓아 철새들은 이농약에 중독돼 그자리에서 쓰러진다. 또 농약에 오염된 미꾸라지나 개구리등 먹이를쪼아먹고 간접중독에걸리기도한다.

처음 농민들은 철새들이 논에 가까이 오지못하도록 논 가장자리에 막대기를 꼽고 고 사이에 흰 천을 매달아 허수아비식 퇴치법을썼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날이 갈수록 철새들이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고 논으로 계속 내려앉게됐다.

한편 철새떼들의 수난이계속되자 이마을 縣南중학교교사와 학생들은 학교안에 「백로·왜가리 진료소」를 차려놓고 살려내기에 나섰다.

「백로·왜가리 진료소」는 1평 남짓한 크기의 천막이지만 중독된 백로와 왜가리들의 응급구호 센터이다. 학생들은 논두렁이나 숲속에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백로를 주어다 이 진료소 안에서 햇빛을 가려주고 해독제를먹여 살려내고 있다.

학생들은 개울에나가 백로가 잘먹는 붕어와 미꾸라지를 잡아와서 이 미끼에 해독제를 발라 백로의 주둥이를 벌리고 억지로 쑤셔넣는다. 약을 삼킨 백로는 농약성분을 다 토해낸후 1~2일 후면 다시 날개에 힘을 되찾아 숲속으로 날아가지만, 그중에는 영영 소생되지않는 백로들도 많다.

학생들을 지도하고있는 이학교 생물교사 崔[illegible]씨(48)에 따르면 지난5월20일 한 학생이 처음으로 쓰러진 백로를 안고와 숙직실에서 치료를 해서 살려보내 주었으나 그후 매일 같이 2、3마리[illegible] 1개[illegible] 지금까지 모두 70마리나되는 백로들을 살려내 숲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崔교사에 따르면, 살려보낸 백로들이 또다시 농약에 중독되어 땅에 떨어지는 수도있고 또 학생들의 시선이 미치지못하는 외진곳에 떨어진 백로는별수없이 죽어가고있다는것이다.

首都圈多核개발

2천년代 果川등 18곳분산

서울시는 현재 單核체제의 수도권을 18개多核體制로 분산, 개발하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2천년대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마련했다.

朴英秀 서울시장이 23일 民正黨에서 서울시출신의원과국회내무, 교체위소속의원들에게 보고한 이기본계획에따르면 현재의 인구증가추세가 계속될경우 오는 2천년에가면 서울시인구가 1천1백80만 명으로 늘어날것으로보고 각종권의시설을 이수준에맞춰 건설함으로써 실제인구는 9백45만명선으로써 억제, 여유있는 도시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기본계획은 單核체제의 수도권을 江南(開浦洞일대) 佛光洞 岩寺洞 盤浦(고속버스터미널일대) 果川, 八堂, 平澤, 龍仁, 民湖院등 18개 多核체제로 분산전환하고 각核도시마다 자체의교육주거시설등을 갖추도록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간과 녹지를최대로 활용, 한강유역을정리, 각종 위락시설을만들고 核도시중심에 대공원과 洞단위小공원을 건설,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기본계획은 또 2천년까지 ▲국민학교 2부제수업 완전해소 ▲주택보급률 90% ▲하도시가스공장 6개증설 ▲하수처리장 5~6개증설 등으로 되어 있다.

돌아온 船員들 空港은 「감격의 바다」

◇폴리사리오 피납선원들이 돌아온 22일밤의 金浦공항은 눈물과 감격의 바다였다.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안으며 와락 울음보를 터뜨렸고 어머니(뒤쪽)는 살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아범아』를 연발했다.

流星의 賦 <113>

李炳注作 李友範畵

紀昌의 길 ㉒

『저는 초한고사(楚漢故事)를 읽고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읍니다』

김달손이 화제를 바꾸었다.

『어떤 생각을 하셨소』

율곡은 흥미를 느낀 표정이었다.

『항우(項羽)가 한패공(漢沛公)의 군사에 쫓겨 오강(烏江)으로 몰리지 않았읍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때 패공은 항우의 목을 친 사람에게 천금(千金)과 만호(萬戶)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읍니까』

『만호를 주어 후(侯)로 하겠다고 했지요』

『항우는 오강의 정장(亭長)이 배를 타고 강남으로 피하라는 권유를 물리치고 자기의 애마(愛馬)를 정장에게 선물로 주곤 도보로 한군(漢軍)에게 덤벼들었읍니다』

『그 대목을 적은 사마천의 필세(筆勢)는 약동(躍動)하지[illegible] 용과 같았지』

하고 율곡은 눈을 감고 읊었다.

『항왕소왈(項王笑曰)、천지망아 아하도위(天地亡我 我何渡爲)、차적여강동자제팔천인 도강이서(且籍與江東子弟八千人 渡江而西)、금무일인환(今無一人還)、종강동부형인이왕아(縱江東父兄憐而王我)、아하면목견지(我何面目見之)、종피불언(縱彼不言)、적독불괴어심호(籍獨不愧於心乎)、내위정장왈(乃謂亭長曰)、오지공장자(吾知公長者)、오기차마오세(吾騎此馬五歲)、소당무적(所當無敵)、상일일행천리(嘗一日行千里)、불인살지(不忍殺之)、이

사공(以賜公)』

달손이 얘기를 계속했다.

『항우가 여마동(呂馬童)을 보고 넌 내고향사람이니 상(賞)이 걸려있는 내목을너에게주마하고 자문(自刎)했을때 모두 달려들어 항우의시체를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싸워 수십명이 죽었다는데제가 깊은생각을 갖게된 바로 그대목입니다. 사람이 어찌그럴수가 있을까 해서가아니라 마지막에 시체를 나눠 가진자가 다섯인데 그다섯이 이른바 오후(五侯)가된겁 아닙니까. 여마동은 중수후(中水侯)가 되고, 왕예(王翳)는 두연후(杜衍侯)가되고, 양희는 적천후(赤泉侯)가 되고, 양무는 오방후(吳防侯)가 되고 여승은 열양후(涅陽侯)가 되고… 사마천이 그이름을 일일이 기록할땐 가슴에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김공은 공신(功臣)이란 것의 실상(實相)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오?』

『정히 그러하옵니다. 귀족이니 양반이니 하는 근본이 기껏 오강오후(烏江五侯)의 패랑서니 아니겠소이까』

『김공의 작정은 알겠소이다만 말의 뜻은 과격하오』

『예컨대 세조대왕의 공신에 대해선 논지(論之) 않기로 되어 있소』

이때 율곡은 달손의 말을 막았다.

『공자님의 도리를 따른다면 적서의 구별은 어이없는일 아니오리까. 공자님의 근본을 따져 보면 숙양흘(叔梁紇)과 안씨녀(顔氏女)의 야합(野合)…』

달손의 이말도 율곡의 제지로 끝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율곡의 얼굴은 누그러졌다.

『김공의 한은 짐작할 수가 있소. 그러나 흥소년을 그런 한(恨)으로 가르치진 마시오』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Please enter my subscription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 한국일보 1년 $90.00. 반년 $46.00
*주 1회 주간한국 무료제공 ☐ 1년
*주 6일 (매 8면) 발행, 신속우송 ☐ 반년
Office Use Only Sub Date ....
Mail this card today !

한국일보사에서는 독자들께 빠른 소식을 전해 드리고저 주2회씩 하던 식품점 배달을 주3회씩(월, 수, 금)오후에 하고 있읍니다.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 • 2361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週刊韓國
주간 女性

신문판매처
고려식품 서울식품
동양식품 삼복식품
반도식품 한국관
한국식품(본점) 한국일보사
〃 (동부)
써니식품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예방접종 事故막으려면 — 전문가에 들어본다

◆◆◆◆ 별추는 예방접종이 말썽을 빚고있다. 여름철 전염병인 장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한 백신이 잇달아 집단부작용을일으켜 한때 4백여명의 중·고생들이 고열과 오한, 마비증세를 일으키는가하면 이중 1명이 숨지는 사태가 일자 예방접종이라면 무작정 기피하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장티푸스 백신부작용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가톨릭의대 내과 鄭喜泳교수에게 알아보았다. ◆◆◆◆

<백신이란?>병을치료하기 보다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두말할필요없이 예방접종은 바로이같은데 착안한것.이같은예방접종 백신은 영국 의과의 에드워드·제너가 1796년 말물어떤 種痘가 효시를 이룬다.

백신은 크게 生백신, 死백신, 미생물이 만들어낸 毒素를 약화시킨 톡소이드(toxoid)등 3가지로 나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병원체를 弱化시킨것.백신의효시가된 천연두를 비롯,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탑저, 黃熱, BCG등의 백신이 이에속한다. 사백신은 병원체를 타산(폐놀)이나 포르말린 아세톤같은 화학물질이나 熱 또는 자외선등으로 죽인것. 이번말썽을 일으킨 장티푸스를 비롯 뇌염,백일해,콜레라,페스트,리케치아,광견병등 백신이이에 속한다. 毒素를 약화시킨 톡소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효과>백신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연감염과 같은 생체반응을 몸속에서 일으킬수 없다. 따라서 백신으로부터 100%의 전염병예방효과란 기대할수 없다. 8가지종류의 백신 가운데 그래도 예방효과가 좋은것은 생백신, 다음이 사백신과 톡소이드가 꼽힌다.

熱있거나 허약할땐 조심해야

◇몸에 열이있다든지 너무 허약하면 예방접종을 피해야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임신부·過敏反應도 마찬가지
清潔·날飮食조심으로 對處를
免疫가능弱한 患者는 접종후 실제로 앓기도

그러나 이들 백신의 예방효과는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없다. 백신의 예방효과는 병원체의 종류는 말할것없고 개인의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과 건강상태등에 따라 크게 달라 질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생백신은 접종을 한 90%이상에서 예방효과를 얻을수있고 사백신과 톡소이드는 이보다 떨어져 70~80%정도에 머문다. 예를 들어 장티푸스는 아세톤으로 살균한 백신의 경우 2~3년간 79~94%의 방어력을갖게되고 석탄산으로 살균한것은 51~73%에서 효과를 볼수있는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콜레라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떨어져 가장좋다는 성적이 6개월간 75%, 18개월까지는 60%정도의 예방효과를 가지며 대개는 3개월이 넘으면 30~40%정도에 머무는것으로 되어있다.

<부작용> 백신은 어떤 것이고 사람에게는 異物質에 속한다. 따라서 접종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당연한 반응에 속한다.

예방접종을 맞은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은 접종부위가 벌겋게되고 부어오르며 통증이 있는것이다. 이와함께 임파관염이 생기고 몸에 열이나기도한다. 문제는 이같은 가벼운정도의 부작용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병으로 발전하는데있다. 백신의 부작용은 건강상태가 나쁘다든지 어떤 병을이미 갖고 있을때 한층 크게나타날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면역기능이 약화되었을 때이다. 면역기능이 약화된 환자에게흔히 천연두와 같은 생백신을 접종하면 이를 병을 실제로 앓게 되는 결과를 빚는다. 또 병원균을 갖고 있는(保菌者) 사람이 그 병원체에 해당하는 백신을 맞아도 실제로 병을 앓게되는 일이 있다. 이같은 일은 태아에게도 문제가 된다. 임신부가 생백신을 접종하면 태아에게 영향을 주어 기형아를 만드는 일까지 일어 난다.

실제로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은 4천7백46명의 임부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1명이 선천성 기형아를 낳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백신 이물질이기때문에 이물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특이체질에서는 페니실린 쇼크와같은 이상반응도 나타날수있다.

백신의 부작용은 이밖에도 백신 자체의 불량과 투여방법의 잘못으로도 온다. 이같은 부작용은 주로 백신제조술이 발달하지 못한 예전에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도 [illegible] 일어 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솔크형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만들때 말정하게 살아있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예방접종후 소아마비(灰白髓炎)를 일으켰는가 하면, 2차대전후 일본에서는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접종한 의사가 6백31명에게 주사, 이중 1백2명이 경해을앓게한 사건이있다.

<주의사항>백신이 영아사망률을 1천명당 10명이하로 몰아 내리고 인간의 평균수명을 70세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치료술의 발달과 위생환경이 크게 개선됨에따라 대부분의 전염병을 극복할수있게된 선진 여러나라는 요즘 예방접종의 득실을 따지고 있다. 전염병은 철저한 위생생활등을통해 예방이 가능한데다 설령 병에걸려도 속히 손을쓰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수도 등 위생시설이 발달하지 못한나라에서는 예방접종은 아직 어느정도의희생을 치르더라도 불가피한일로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마찬가지. 따라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부작용을 가능한한 줄이는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鄭喜泳교수

우선 예방접종은 몸에 열이 있다든지 몹시 허약할때 피해야 한다. 임신부도 마찬가지. 또 예방접종에대해 늘 과민반응을 보인 사람도 피하는것이 좋다. 이같은 사람은 전염병이 유행할때 손을 깨끗이 씻고 날것을 먹지 않는등 개인위생에 특별히 유의하도록한다.

예방접종후 열이있으면 해열제를 투여 하는등 對症요법을 했다 해서 약효가 떨어지지 않는다. 증세가 심하면 하루정도 푹 쉰다. 접종후 곧 목욕을 하지않도록 한다. 접종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접종약은 일단 뚜껑을 열면 즉시 다 사용하고 남은것은 버리도록 한다. 주사바늘은 1회 사용후 새것으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 【李光榮기자】

進行癌치료율 美선 41%
저명한 腫瘍학자 스테픈·카터博士
수술·放射線·약물 併合療法 큰 발전

인터뷰

『암치료술은 나날이 발전해가고있어요. 특히 최근의 발전이라고하면 수술과 방사선 그리고 약물요법을 적절히 동원하는 병합요법 이지요』

미국의 저명한 腫瘍학자, 이자 산하에 21개 암 종합병원과 75개 특수 암진료소를두고있는 北 캘리포니아 암연구회 수석책임자인 스테픈·K·카터박사의 말이다. 카터박사는 이같은 병합요법의 발전에 힘입어 현재 미국의경우 진행된 암에서 평균41%의 치유를 올보이고있다고설명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진행된 유방암의 치유율은30~40%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요즘엔 60%정도의치유율을 보이고 있지요. 어린이 신장에 많이 발생하고있는 윌름氏종양은 80%정도의 치유율을 나타내지요』

延世大 암센터 金炳洙원장 초청으로 來韓한 카터박사는 이밖에도 진행된고환암과 난소암, 임파선 백혈병 등에서도 50%정도의 치유율을 보고있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항암제를 찾는 일도 활발합니다. 현재 20여종의 새 항암제가 실험중인데 5~10년안에 실용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카터박사는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만 매해 80만명에 달하는 새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말하고 미국은 이들 암을 퇴치하기 위해 예방사업에도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암의 80%정도는 환경이 만든다고보고 있지요. 그래서 암퇴치사업을 위해 발암물질을 우리생활주변에서 추방하는운동도 벌이고 있어요』

◇스테픈·K·카터박사

이 미국은토이일후 위암 발병률이 뚝 떨어지는것은 좋은 실례가 된다고 했다.

카터박사는 또한 요즘 암예방물질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덧붙인다. 현재 알려진 發癌물질만도 자그마치 1천5백여종. 따라서 이들 발암물질이 인체에 전연 근접치 못하도록하는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에 속한다. 암예방물질을 찾는 일은 이들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암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보자는 데 있다는것. 현재 비타민A를 비롯해서 비타민C와 E 그리고 셀레니움등이 암예방물질로서 주목되고 있다고.

카터박사는 이어 현재 미국에서 폐암 발생률 1위는 남자에서 여자에서 유방암이 달리고 있으나 요즘여성의 흡연인구가 늘어남에따라 여성 폐암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큰사회문제가되어있다고했다.

11회 主婦생활科學강좌
26일하오2시 淸州시민회관서

을「주부생활과학강좌」(주최=한국일보社·한국科學技術振興財團·한국방송공사, 후원=과학기술처·내무부·문교부)에서는 11번째 강좌「건강관리와 과학」을 주제로 26일(金)하오2시 淸州시민회관에서 엽니다. 누구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잘못 알려진 그릇된 의학지식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서울大 洪文和교수는 이에 대한 올바른 건강관리 요령을 실례를 들어가며 재미있게 들려줄 것입니다. ※문의처=한국科學技術振興財團(⑦0239).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㉞
미국식 砂防工事

영림육종연구소의 前身이었던 임업시험장 육종지장시절, 우리에겐 정부로부터 새로운 일부가 부여되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방공사에 미국의 토양보전기술을 도입하는일과 관련하여 황폐한 우리나라 산에 적용할수있는 草類와 灌木類를 가려내는 실험이었다.

황폐지복구를위한 사방사업은 日帝때부터 해오던 일이었다. 해방당시 全국토를 통제에는 우리나라의 사방사업 필요면적은 南北을 합쳐 18만정보로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해방후의 혼란기와 6·25전란을 겪으면서 산은 더욱 망가져서 5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방필요면적이 南韓만 50만정보로 늘었다. 그동안 우리가 산을 얼마나 학대했는가를 실증적으로 알려주는 숫자다.

미국의 토양보전학자 미치·휠머박사는 「수천년동안에 이뤄놓은 삼림도 사람이 그릇 취급하면 몇十년이에 사막으로 변한다. 그대신 그 사막을 다시 삼림으로 복구하려면 수천년이 걸린다」고 경고한적이있다. 이 警句를 우리는 귀담으로 흘려버린 꼴이었다.

반 사막이 되다시피한 황폐한 산을 보다못한 당시 李承晩 대통령도 조림과 애림을 강조했다. 그러나 산은 조금도 푸르러질줄 몰랐다.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조림을 독려했으나 햇빛아래 버려지거나 심지어는 땔감으로 쓰여지기까지 했을뿐 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사방도 마찬가지 결과였다. 그 이유는 돈정적게 들이고 사업은 많이해서 빨리 결과를 얻으려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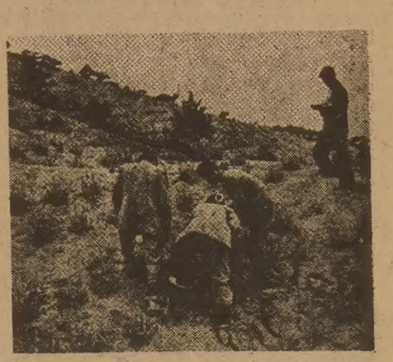
美學者초청 「上流水源함양사업」전개

투자비용만 보더라도 조금한 마음을 짐작할수있다. 정부가 책정한 사업비용은 정보당 56년에 15만환, 60년 2만3천원이었다. 그해의 2만3천원이란 日帝가 사방공사에 들인 비용 5백円에 비하면 화폐가치를 환산해서 10분의1에 불과했다. 그러니 사방사업이란 형식뿐이가 한두차례 하고 지나가면 하나마나한 원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따라서 확실하게 기술을 들이고 질을 대했고 하려건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도록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자 미국의 토양보전학자인 미치·휠머 박사가 미국의 사고방식을 갖고 와서 농지보전및 토양보전학자를 초치하여 상의해보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당국이 주선하여 미대사관을 통해 관계학자인 프리츠씨를 단장으로하는 조사반이 來韓하여 농경지 토양보전방식을 도입, 적용하도록 정부에건의했다. 이를 上流水源함양사업이라 이름했다.

이사업을위해 미국에서 草類씨앗을 대량으로 도입, 육종지장으로하여금 국내적응여부와 工法에관한 실험을 하도록 했고 고문관으로 유솜의 일부관 미첼씨가 파견, 실험에 同參했다. 물론 국내에서 自生하는 풀씨의 적응시험도 했지만 미국서 도입한 씨앗은 33종에 좋이 1배로 은 되었을것이다.

그러나 이 새사업은 「한국에 不適」이라는 문제점을 임태하고 있었다. 趙廣海씨, 정제열씨그리고 筆者등은 不可를 주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도입씨앗에 대한



◇미국서 牧草씨앗을 도입하여 실시한 上流水源함양사업。 繁茂工法대신 도입 草類를 직파했던 이 사방공사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草類씨앗도 33種이나導入 실험…失敗로 끝나

각종 실험을 거친결과 오차드,슈워치,페스큐류등 3가지 풀외에는 적응력이 좋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산초류중 안고초와 솔새가 적응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미국산도 싸리,오리나무, 아카시아류와 混播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미국서 도입한 풀은 주로 牧草로서 미국식방법에의해 황폐한 산에 직파를 했는데 처음에는 비로 씨앗이 모 탐스럽고 무성하게 우거졌으나 겨울을 지낸 다음해에는 비로기도 없는데 추위를 이기지 못해 흔적도없이 시들어 버렸던 것이다. 따뜻하고 비옥한 미국의 토양조건지 출고 척박한 토질의 우리나라의 풀로는 되지 못했다.

59년엔 始興郡에서 대통령과 미대사가 나오고 수만명이 동원된 사방사업촉진전국대회까지 열었으나끝내 돈만 허비하고 말았다. 우리와함께 실험에 참여했던 미첼씨도 이를 인정하고 미국인 조사단 일행과함께 61년에 철수, 5년동안의 上流水源함양사업은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당시 도입초류에대한실험결과를 소개한「토양보전사업회보」와「토양보전편람」이 출판되어 그때의 상황을 지금에도 읽을수 있다.

이같은 시행착오의 교훈을 거친후 우리나라 사방사업은 곧비(75년 75만원선)가 현실화되고 高技術자들도 모여들어 궤도를 잡아갔다.

그러나 무엇보다 리치·휠머의 名言을 되뇌게했으며 투자를 하되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실감케해준 예이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網膜色素變性과 夜盲
個人差많아 30~40代에 失明까지

망막색소변성증은 일종의 유전병으로 환자에 따라 優性, 劣性 또는 伴性遺傳을 한다.

망막의 視細胞층에서도 특히 杆細胞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망막주변에 위축성변성이 나타나는데 이때문에 夜盲을 호소하게 된다. 빠르오면 10대부터 나타나지만 대개는 30~40대에 이르러 밤눈이 어두워지며(야맹증) 이와함께 주변 視野가 좁아지는 현상이 점차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터널속에서 바깥을 보는 기분이다. 최후에 가서는 남아있는 視野마저없어지게 되어 암흑의 세계가 되고 만다. 그런데 경과의 진행에는 개인차가 많아 어떤환자는 30~40대에 실명하는가하면 50~60대까지 中心視力은 유지하는 일도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0~60대에 가서는 中心視力마저없어 失明되는 것이 보통이다.

망막색소변성증은 흔히 近視, 후낭 白內障 및 녹내장 등을 합병할수 있기때문에 주기적검사가 필요하며, 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야한다.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않다. 다만 어두운곳에 순응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약과 망막의혈관을 확장해서 血行을 좋게 해주는 약물이 사용되고있는데 가능한병의 진행을 어제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된다.

망막색소변성증에서는 강한 태양광선이 해롭다. 따라서 강한 햇볕아래서 일을하는것을 삼가야한다. 외출할때는 선글라스를 사용토록한다. 흡연은 시신경과 망막세포에해로우므로 금연해야한다.

환자는 일생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하되 과로, 과음을 피하고 병이 나지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가령 감기라도 증세를 극히 악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경과중에 白內障이 생겨 시력이 나빠지면 백내장수술을 할수있는데, 이때에는 시력개선이되지만 視野협착은 개선되지 않는다.

20대이전에 이병이발생,증세가악화되어가면 失明에대비, 再活교육을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망막색소변성증이 있는사람은 자동차운전을하지 않아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에서 야맹증및 시야협착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수는 있지만, 이런운전자는 밤에는물론이거니와 낮에도주변시야 협착으로 주위의통행인이나 자동차를 제대로 못보기때문에흔히 교통사고를 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이밖에도 유전성 신경장해, 비타민A결핍증, 녹내장, 시신경위축및 백내장이 있을때도 나타날수 있다.

金在浩 〈醫博·가톨릭醫大 聖母病院 안과장〉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1局 第8譜 132~152 (각5시간)

白(挑戰者) 徐奉洙
黑(名人) 曺薰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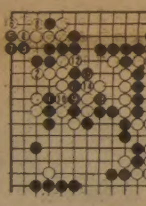
좌상白집을 갈라쳐들어간 시점에서 일부아마추어는 黑의역전승을 속단하고 술렁거렸다. 그러나 프로기사의견해는 또달랐다. 『白도 대신 32의곳을 밀고들어가게 되어 대세는 막상막하』라는평이다.

이런것도 아마추어와 프로기사의견해가 근본적으로 판이한 예라하겠지만 좌우간 名人이 黑33을 28분이나 생각한것으로 미루어 이곳이 중대한 고비임을 짐작할수 있었다.

白34면 黑35, 37의때가 필연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나 黑37이 또하나의 중요한고비였다. 검토실에서는 이곳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즉黑37, 39곳의 패는 아까운 기회를 잃은점이다. 37로는 참고도의 黑1에 먼저, 白2를 응수시킨 뒤에 일단 黑3이하 7을 선수하고 9로뻗어나가는 수가 있었다. 만약 白10이면 黑11이하15까지로서 좌변白이 몽땅잡혀버린다. 따라서 黑9 白은 11쪽으로 연결해야 되지만 이 10으로이어가면이곳白2점을 黑이살리게되니 그래서 6집이상의차가 가난다는것이다.

실전에서는 그 기회를 잃고 패싸움마저 黑47로 후퇴하여 억울하기 짝이 없다. 여기서 한숨 놓기된 白은44, 48등을 선수하고 마침내 최대의 곳인 白50, 52 하변의 판도가 흑에게 일변하고 승리도 白에게 기울어진 느낌이다. 43, 46…패. 【一凡】

黑 최후의 찬스를 놓치다



모든종이 외어生 <130>
趙善作 作 / 馬慶熙 畵

그림자놀이 ⑲

아무래도 나는 어머니가 말은 것과 똑같은 토끼, 똑같은 염소를 말할 수는 없었다. 토끼를 말하려다 게(蟹)가 되고 수염난 염소를 말하려다 거미를, 그것도 불확실하기만 한 그림자 밖에 만들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다. 모방마저도 할 수 없다는 의식. 그리하여 모든 일을 잡쳐 버렸다는 깨우침은 나를 참혹하게 만들었다. 바닥없는 함정. 한없이 깊은 참혹의 우물에 나는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느낌이었다.

그는 왜 내 곁에 가만히 누워 있기만 했을까. 잠결에 나는 그가 내 침대로 와 나를 건드릴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했다. 예전에 그는 늘 그랬었으니까. 함께 숙박업소에 들기 전까지 그가 했던 약속은 늘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보다 많은 시간, 보다 많은 부드러운 대화, 그리고 가벼운 입맞춤이나 포옹을 원했는데 그는 늘 시중창의 싸움부터 걸어오곤 했었다. 그런면에서 남자와 여자사이에생리적인 차이가 있다는것을나는책에서 읽어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되풀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그가 하고자 할때 나는 그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어쩌다 굴러 들어온 성욕(性慾)의 해결처 이상으로 그가 나를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두려움을 앞세우고 나에게 찾아왔을 정도였다. 그런 조바심과 의심이 비슷한시기에 왔고, 그리고그런것들을한꺼번에 해결하려고나는결혼을서둘렀던 것이다. 그랬던 그가 나를 곁에 누여 놓고도 아무짓도 하지 않은 것이다. 몇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그에게는 두번째의 결혼이라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이해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나를 습격했어야 옳았으며, 그런 일이 일어났을경우 마상 나는 그를 물리치지 못했을 것이다. 잠들기전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어머니의 그림자와 똑같은 그림자를 만들었다는 내 처음의 계획은 무너지게 되지만, 그런대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 나가면 된다고 나는 매우 체념적인 생각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 일도 하지않았다. 왜그랬을까. 나는 낮에 그가 헤어진 여자와 관련해서도 그의 부작위(不作爲)를 생각했다. 그녀에 대한 그의 도리 때문이라면, 하고 생각하자 나는 더욱 참혹한 느낌이었다. 아파트에 둔 부인과 또 하나의 연인, 그 틈만으로 그는 충분하며, 나는 다만 자살할까 적이나는 과거의 여자일 따름이다. 하고 생각하자 나는 정말로 자살이라도 하고싶을 지경이었다.

나는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설사 그가 깨어나서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한다 해도,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실패는 이미 확정적인 것이 아닐수없었다. 이제 나는 이 여행을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수밖에 없었으며, 조심조심 그의 방을 나왔던 것이다. 거리에 나왔을때는 간밤의 일이 아주 먼옛의 기억으로 찢겨움질치는 느낌이기조차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침대 위에 내가 어머니와 같이 하고자 했던 그대로 아무일도 없이 누워만 있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내 뇌리의 한 갈피를 차지하고 나를 괴롭혔던 것이다. 이미 참담한 패배로 끝나버린 그 일에 관해 나는 매력도 애정도 잃고 있었다. 다만 실의와 자괴로 입맛도 잃은채 그 여름을 보냈을 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 뜻밖에도 그가 유성에 동행했던 여자를 찾아낸 것이다.

싸다고 소문 난
가 나 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청 첩

김백봉씨 4남 신랑 문원 군
신준균씨 3녀 신부 봉도 양

장 소 : 제일장로교회 (963 Pharmacy Ave.)
시 간 : 1981년7월11(토) 12시
주 례 : 김 용 출 목사

— 피로연은 뉴서울에서 오후2시부터 엽니다.

청첩인 : 이인덕, 김광욱, 신우원, 김광덕.

진 행 : 배 리 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아세아한약방
●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 보제첩약및,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 특수 한약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678 BLOOR ST. W.
☎ : 530-0522 조 지 섭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럴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浦鐵, 9회 勝機잡아 1승

第一銀 投手난조 틈타 6-5

實業야구 後期 1차리그 開幕

실업야구후기 1차리그가 예정보다 2일 늦어진 23일10개팀이 출전한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풀리그에 돌입했다. 첫날경기서 浦項製鐵은 9회말 1死만루의 찬스를 5번 尹東均의 내야땅볼로 살려 5—5의 균형을 깨고 6—5로 승리, 첫판을승리로 이끌었다. 第一銀4번 李鍾道는 1회초 선제3점홈런, 8회초 동점홈런등 2개의 장타를 기록하며 분전했으나 6회에 릴리프한 국가대표鮮于大泳이 등판하기가 무섭게 집중 3안타를 허용하고 2개의실책마저 겹쳐 전세를 그르쳤다. 한편 商業銀行은 5번 琴光玉이 2개의 솔로홈런을 터뜨리는등 4개의 홈런을 포함한 장단 12안타로 韓國電力을 7—4로 꺾었다.

◇2盜성공 商銀과 韓電의대전. 3회초 포볼로나간 商銀의 2번柳志烜이 2盜에 성공하고있다.

琴光玉시즌 2백호 홈런
商銀도 韓電마운드 強打 7-4

琴光玉이 7회초날린 홈런은 올실업야구연맹전 2백호 홈런이며 92번째 게임에서 작성되었다。琴은 올들어 15개의 홈런을 기록했으며 1백호 홈런은 지난 3월28일 전기 1차리그 韓國化粧品—浦項製鐵의 경기서 韓化4번 金奉淵이 터뜨렸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河基龍은 8회까지 2안타의 호투를 보이다 9회말 마지막수비서 5연속 안타를 허용, 劉喜明에게 마운드를 교체함으로써 완투하지 못하고 4실점을 당했다.

浦鐵9회말 마지막공격 1死만루, 타석에는 노장좌타 尹東均(32)。5—5의 타이에서 浦鐵은 귀중한 찬스를 맞이했다. 그러나 尹이 때린 타구는 3루수 정면으로 가는 루바운드의 땅볼, 어김없는 병살타였다.

지명타자로 뛰다 마침 尹東均타석때 河泰汶대신 3루수로 들어온 徐泳泰는 이타구를 잡아 2루수로 연결, 병살을 노렸다.

그러나 2루수 羅昌紀의 1루송구가 1루수 河泰汶의 미트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타자주자 尹東均의 발이 1루를 밟고난 다음。

게임의 흐름은 강타자 李鍾道(29)의 활약으로 第一銀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李는 1회초 1死1、2루에서 浦鐵선발 朴相悅로부터 좌월 1백20m 3점홈런을 터뜨려 기선을 제압했다.

第一銀4회초1死1、2루의 찬스때는 9번 徐泳泰가 중전적시타를 날림으로써 4—0으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浦鐵의 반격은 6회말 第一銀마운드가 교체되면서 불을 뿜었다.

5회까지 浦鐵3번 宋鎬浩에게만 2안타를 허용한 金德烈이 2개의 연속 포볼을 내자 白虎旗대회우승의 주역鮮于大泳을 투입, 불을 끄려했다. 그러나 대타 辛鉉旭과 8번朴貞煥이 연속중전안타로 1타점씩 올리고 후속에 1런로 얻은 1死만루에서 1번 咸學洙의 내야땅볼, 2번 裵大雄의 우전적시타, 내야진의 송구실책등으로 3점을 보태 5—4로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李鍾道는8회초 또다시 朴相悅을 좌월 솔로홈런으로 공략, 5—5 동점을 만들었었다.

◇제1일전적

제일은행 (1패)	3	0	0	1	0	0	0	1	0	5
포항제철 (1승)	0	0	0	0	0	5	0	0	1	6

▲홈런=李鍾道(1회초·3점·8회초·제일)

상업은행	0	2	2	1	0	1	1	0	0	7
한 전	0	0	0	0	0	0	0	0	4	4

▲홈런=琴光玉(2、7회초) 金明求(2회초) 張泰洙(6회초·이상상은)

세계頂上이 허물어지고있다
한국 男女복식서 中共꺾어
男子·女주니어 戰力급상승
全美오픈 卓球결산

한국은 이번 全美오픈탁구대회 남녀 복식서의 쾌승으로 中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떨쳐버리게 되었다. 여자보다는 더큰 격차를 느끼고 있던 남자복식서 金浣과 劉時興은 초반부터 쾌조의 콤비를 이루어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 남자탁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여자복식의 黃男淑·安海淑조도 안정된 플레이로 제대로 호흡을 맞추지 못한 中共의 張德英·曹燕華조를 일방적으로 리드했다.

남녀 복식서 거둔 기대이상의 큰 성과로 21일 프린스턴대학체육관은 한국선수단과 응원나온 현지 교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축제와도 같은 흥겨운 분위기를 이루었다.

『남자탁구로서는 처음 中共을 꺾었다. 후배들이 이런 대견한 전과를 올려 탁구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金忠勇第一합섬 남자팀 감독은 스코어에서뿐만 아니라 경기내용면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며 기뻐했다.

東亞건설 여자팀의 俞鎭奎감독도 『이번 승리는 중공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를 씻는 계기가 되었다. 2년후 세계선수권대회서 좋은 경기를 할수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되었다』고 말했다.

金昌植단장은 『핑퐁외교가 시작된 이래 中共은 처음 美洲에 정상급 선수들을 파견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자기 기량을 십분발휘, 中共을 이길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78년 崔元碩회장 취임 이후 탁구발전을 위해 성심성의로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세계정상의 中共 탁구벽이 한국탁구의 신예 선수들에의해 서서히 무너지기시작, 세계 탁구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한국은 지난 10일부터 홍콩에서 열린 캐나다오픈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챔피언 中共의 童玲과 노비사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복식챔피언 張德英을 맞아 주니어 선수들인 朴銀珠·白良美(서울여상)조가 단체전 복식과 개인복식에서 연파, 국내탁구계는 물론 세계탁구계를 놀라게 했다.

美國오픈서도 남자복식서 中共과의대전 사상처음으로 개가를올려, 한국탁구는 中共의 長城를 허물어 뜨릴수있는 청병으로 등장했다. 【뉴욕=方錫皓특파원】

體育會、3단체 加盟승인
볼링、롤러스케이트、요트協會

대한체육회는 23일 하오 제5차 이사회를열고 준가맹경기단체인 대한요트협회, 대한롤러·스케이트연맹, 대한볼링협회등 3개단체의 가맹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연맹은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받는대로 명실 상부한 경기단체로 활동하게된다.

요트협회와 롤러·스케이트연맹은 79년6월 준가맹단체로 승인받았으며 볼링협회는 80년2월 준가맹단체 승인을받고 꾸준히 정식가맹승인을 추진해왔다.

이로써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30개에서 33개로 늘어나게되었다.

泰、말聯에1對0 아시아 學生축구

【자카르타22日AP=聯】제10회 아시아학생축구대회 이틀째경기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泰國은 말레이지아를 1—0으로 물리쳤다.

23일에는 印度—브루네이、싱가포르—泰國전이 벌어진다.

◇제2일전적
태국 1—0 말레이지아

世界大會앞서强訓 女子주니어排球팀

오는10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청소년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여자주니어대표팀이 지방전지훈련을 끝내고 22일부터 泰光産業체육관에서 강화훈련에 들어갔다.

여자주니어대표는 지난7일부터 忠南泰安女商 체육관에서 훈련을 해왔는데 부상으로 1차훈련초반에 빠졌던 松源女商의 諸淑子·鄭香順양도 합류, 떠날때까지 실업팀들과 대전을 거쳐 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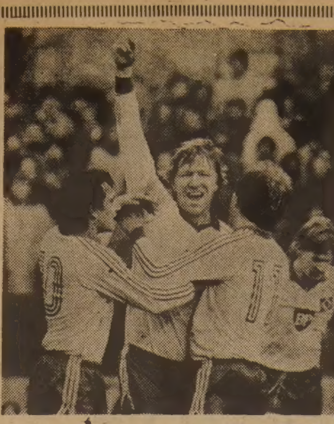
한편 9월 美國서 열리는 남자선수권대회 출전대표는 仁川仁荷大 체육관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崔泰鎭배구코치 아랍에미리트進出

남자 주니어 배구대표팀前코치였던 崔泰鎭씨가 아랍에미리트 알·아라인 클럽으로부터코치로초청을받고오는 7월 초순 현지로떠날예정이다.

월2천2백달러 (한화 1백50만원)에다 차량·주택·2개월 유급 휴가·왕복 항공료등을 제공받게 될 崔코치는 지난해 서울서 열린 제1회 아시아 주니어 배구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관계자에의해 초청됐다.

「TV審判」에 떠는 스타들
분데스리가서 反則적발 處罰받아
審判이 못본것 들춰내
함부르크의 호루베시 8週間출전금지
페차이도 半年間…선수들 不滿感일어



◇함부르크SV팀의 주전 공격수인 호루베시가 골을넣고 기뻐하고 있다。호루베시는 TV스크린에 반칙이 잡혀 8주간의 출전금지처분을 받았다。

지난 13일 막을내린 西獨프로축구 분데스리가는 18개팀의 적자누적、관중수의 격감、극성 팬들의 폭력 등 여러가지 문젯점을 드러냈다。이와함께 특히 주목을 모은것은 「TV심판」의 위력이었다。

TV심판이란 선수들의 반칙을 정확히 가려내지못한 주심과 선심의 실수를 TV카메라로 포착、사후에 再審하여 그결과를 西獨축구협회(DFB)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제도인데 이같은 TV심판의 피해자들이 지난시즌중 급격히 늘어났다는것。

함부르크SV팀의 스타플레이어로 인기절정에 있는 호르스트·호루베시는 살케04팀과의 대전에서 팔꿈치로 몰래 상대선수를 친 장면이 TV스크린에 잡혀 경기후에 DFB에 제소됐고 끝내 8주간의 출전금지 처벌을 받았다。

분데스리가의 외국인선수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프랑크푸르트팀의 브르노·페차이(오스트리아)도 TV심판에걸려 거의 반년동안 출전금지 처분을받았다。

TV심판이선수들의 와일드·플레이를줄이는데 공헌하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축구관계자와 선수들은 큰불만을 나타내고있다。

현재 DFB의 징계위원회의책임자로 있는 한스·킨더만씨조차도 TV심판제도에대해 못마땅해하고 있다。그라운드의 영웅을 만들어내던 TV는 하루아침에 영웅의 관(冠)을 벗겨버리는 반칙감시망으로 변모한 셈이다。【프랑크푸르트=南行植】

忠義축구팀 전용合宿所 忠義館 개관
陸士안에 百坪 규모로

◇忠義館개관식에서 崔淳永축구협회장등 관계인사가 기념테이프를 끊고있다。

忠義 축구팀의 전용합숙소인 忠義館이 22일 육군사관 학교 안에 준공되어 앞으로 우수선수 육성과 선수관리에 새로운 계기를 맞게되었다。

건평1백평의 충의관은 40명수용의 합숙소를 비롯하여 현대식 주방과 샤워장, 휴게실등을 갖추었으며 지난3월 15일 착공, 2억2천9백60만원을 들여 3개월만에 완공됐다。

70년대초부터 수많은 대표급 우수선수를 배출한 육군에서는 축구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도체계를 일원화하기위해 80년초부터 육사에 센터를 두고 집중훈련을 쌓고있다。

한국대표 花郞의 趙廣來 朴成華를 비롯、24명의 선수를 보유한 忠義팀은 앞으로 忠義館을 모체로하여 국위선양과 각종국내외 대회를 석권할 목표를 세우고 하드·트레이닝을 다짐 했다。【鉉】

漢陽大 후반서 승세
日本大초청농구
黃仁奎 尹在根공헌
66대61

장충체육관서 22일 진행된 日本大 초청 韓日 대학 농구 경기 2차전서 漢陽大는 黃仁奎 尹在根 등의 활약으로 日本大를 66—61로격파했다。日本大는 2연패를 당했다。

이날 日本大는 2m4의장신 가게야마(景山)와 다까하(高羽)의 중거리로 전반 漢陽大와 접전을벌였으나 후반 漢陽大의 속공과 중거리를 막지못해 66—61로 졌다。

◇2차전
한양대 66 (30—36 / 36—25) 61 일본대학

韓國-우루과이 브라질-아르헨 오늘 準決勝

제11회 대통령盃 국제축구대회는 우루과이—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의 4강대결로 압축되어 24일 하오 서울운동장서 맞서게 된다.

우루과이 (다누비오)는 22일 저녁 서울운동장서 열린 예선 10일째 B조 최종 5차전서 브라질(비토리아)과 격전끝에 1—1 무승부를 기록, 4승1무로 B조1위를 차지했으며 3승2무의 브라질은 2위가 됐다. 몰타는 泰國을 2—0으로 물리쳤다.

◇예선 최종일 전적
B조
몰타 2—0 태국
우루과이 1—1 브라질
▲동순위=①우루과이 4승1무 ②브라질 3승2무 ③몰타 2승2무1패 ④태국 2승3패 ⑤리히텐슈타인 1승1무3패 ⑥인도네시아 5패

한국의 全美卓球남녀複式우승
中共 北京放送도보도

【서울=聯】中共의 관영 北京방송은 22일 韓國의 남녀 卓球복식조가 美國의 뉴저지州 프린스턴대학에서 개최된 제51회 全美오픈탁구선수권대회의 최종일경기에서 中共팀을 격파하고 우승한 사실을 보도했다.

◇6連覇 노리며 22일 개막된 윔블던 테니스대회에서 사상최초의 6連覇를 노리는 스웨덴의 비에른·보리가 美國의 렌너트와의 1차전에서 스매싱을 하고있다. 보리3대0으로완승。【윔블던22日UPI=聯】

全美 오픈골프 制覇
그라함에 5萬5千弗상금

【에드모(펜실베이니아州)聯】제81회全美오픈골프선수권대회는 호주의 데이비드·그라함이 토틀 7언더·파 2백73타로 우승, 5만5천달러의 상금을 차지했다.

그라함은 全美오픈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 외국인으로는 다섯번째이다.

조지·번즈와 빌·로저스가 동타 2백76타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日本의 간판프로인 아오끼·이사오(靑木功)는 2백81타로 11위를마크했다.

有名선수 脫落속출
윔블던테니스 異變

【윔블던22日AP=聯】22일 개막된 전통깊은 윔블던테니스대회는 세계테니스계의 이반·렌들과 프랑스의 야닉·노아등 시드배정을 받은 2명의 강호가 1차전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하고있다.

濠洲의 찰리·팬커는 4번시드인 렌들을 3—2(4—6、6—3、6—4、1—6、6—4)로 제압했으며、美國의 에릭·프롱은 13번시드의 노아를 3—0(6—4、6—4、6—3)으로 완파、2회전에 올랐다.

또한 대회 6連覇를 노리는 스웨덴의 비에른·보리는 美國의 피터·렌너트를 3—0(7—6、6—3、6—1)으로 완파했고 美國의 덕·스톡턴은 지미·코너스와 함께 순조롭게 2회전에 올랐다.

高麗師大체육과 26일 硏究발표회

高麗大學校 사범대체육교육과는 26일 상오9시부터 하오5시30분까지 동교중앙도서관 4층회의실에서 체육학술연구발표회를 갖는다.

中學농구 成德女中 淑明격파
大京·龍山中 준결승 對決

제6회 협회장기쟁탈 전국 남녀중학 농구대회 준준결승전이 23일 장충체육관서 속행, 남중부서 大京中은 三仙中을 48—30으로 제압, 松都中을 51—32로 대파한 龍山中과 준결승서 대결하게 되었다.

한편 여중부서 成德女中은 淑明女中을 48—33으로격파, 준결승에 나갔고, 善一女中과 舞鶴女中의 대전서는 善一女中이 39—27로 이겨 역시 준결승에 올랐다.

◇제3일 준준결승
▲남중부
대경중 48—30 삼선중
용산중 51—32 송도중
▲여중부
성덕여중 48—33 숙명여중
선일여중 39—27 무학여중

오늘의 競技

축구 제11회 대통령배국제대회준결승(서울운·5시) ▲아르헨티나—브라질 ▲한국—우루과이
야구 실업3차리그 2일전(서울운·11시) ▲한국화—한일 ▲롯데—농협
농구 ◇韓日대학친선경기4차전(장충체·3시) ▲중앙대—日本大 ◇6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학대회4일(장충체·1시)

音樂

한국가곡의 밤

한국예술가곡연구회(회장 金聖泰)는 26일 저녁7시30분 숭의음악당에서 한국가곡의밤을 갖는다. 출연에 金淸烈·金英淳·崔賢洙·朴榮洙씨등.

한소리회 國樂특강

한소리회는 27일 하오4시~5시「한국음악의 역사」에 대한 특강을 갖는다. 강사 李惠求씨 (서울대교수). 문의전화 ㉨0000.

高麗교향악단 연주

고려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25일저녁 7시30분 국립극장에서 열렸다. 지휘에 金滿福씨, 협연에 金泰植씨(피아노)와 文寬淑씨(소프라노).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2번, 모차르트의 모테트「기뻐하라 환호하라」, 모차르트「주피터」.

吳鉉明·李孝益씨 월간음악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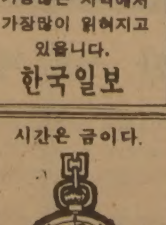
「월간음악」社는 제11회 월간음악상 수상자로 오페라 연출가이며 바리톤가수인 吳鉉明교수(한양대)를 선정했으며 제2회 월간음악공로상에는 李孝益씨(삼익피아노대표이사)를 뽑았다. 시상식은 7월7일저녁7시 국립극장대회의실에서 열린다.

◇李孝益씨

◇吳鉉明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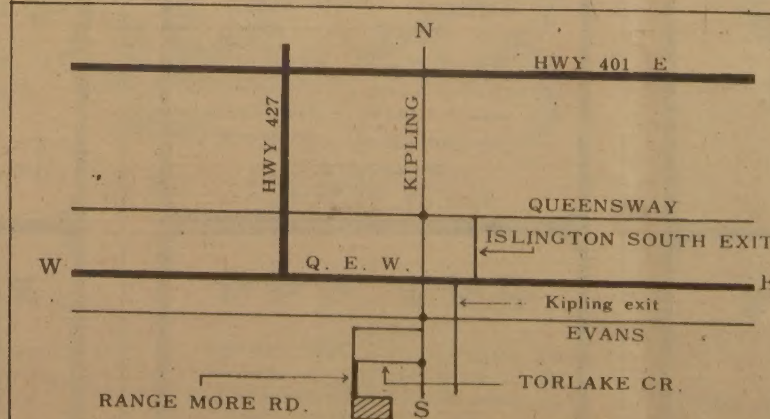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시간은 금이다.



한국일보 구독·광고
(416) 533—2361

한 인 연 합 상 사



★주문전화 : 251—6578 MISS 정
27 RANGEMORE RD. TORONTO, ONT.
영업시간 : 월~토 8시~6시30분
※토요일 오후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바가지" 없는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스토아 여자 캐쉬어 구함
(토, 일요일, 12~8시까지)
☎ : 921—0624

입주하시거나 출퇴근하셔서 애기 돌보아 주실분
오후6시 이후 연락
☎ : 535—4441

파타임 스토아 헬퍼구함 :
빅토리아 · 팍과 댄포트
☎ : 759—7501

베이비 씨터 구합니다.
☎961—6647 미스타 최

MONAMI JAPANESS R. : 웨이트레스
(11 : 2PM)월~금요일. 114 Laird Dr., Leaside
☎ : 421—6016(Mr. Masuda) Call after 2PM

1) 풀타임 헬퍼 남자 주5일(60시간)시간당 $6
트럭운전, 영어요함.
2) 토, 일요일 남자 파타임 요함.
3) 가정일 돌보실분 오전8시~오후5시, 출퇴근,
월~토요일까지, 주6일, $100.00
☎ : 762—1572(B), 769—9854(R) 미세스 김

주말 케쉬어 구함
WILSON과DUFFERIN지역
☎ : 638—5530 미세스 김

애기와 살림 돌봐 주실분 구함
☎ : 425—9839(B)
438—0920(R)

남학생 가게 헬퍼 구함
261 SCARLETT RD.
☎ : 767—0762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 362—2300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재봉사 구함 (남 · 여)
• 약간명 • 유경험자 • 좋은 대우
•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매매및 양도

벡 커 매매
연매상 30만달러
☎ : 783—1984

가게매매 :
주매상 $4.200, 살림집포함(4베드룸) 렌트, 리스,
호조건. ☎ : 1—579—4451(OSHAWA)

버라이어티 스토아 SET UP사실분
렌트 $350, 리스6년+6년 옵션
☎ : 465—6247 JACK PONG

몬트리올 영어지역 스토아 매매 :
주매상 $6000~6300개런티. Asking $60000+스탁.
Cash $55000이상. 맥주와 와인 취급하며 배달 없음.
주위에 새로운 빌딩 건설중임
☎ : 1—514—486—0944

픽업 세탁소 SET UP하실 분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아주 싼 값에 팝니다.
☎ : 487—5000

가게매매 : 직접내방원함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1385 WESTON RD. (제인×웨스턴)

가게 QUIPPMENT매매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고깃간등
☎ : 653—6366 9~5시
292—0332 6시이후 칼엔

프렌자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밀크스토아 급매 :
☎ : 277—3745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SET UP중인 가게를
급매코자 합니다.
☎ : 968—9221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밀크스토아 매매
4630 KINGSTON RD.
☎ : 282—7596

DONNA LIA FRUIT : 성업중인 가게를 매매합니다.
주매상 $6000.
☎ : 654—7240 1362 ST. CLAIR W.

그로서리 스토아및 빌딩 팝니다 : 이층 벽돌 건물이며
장래성이 많고 TUCK SHOP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음.
☎ : 781—7080 458 CALEDONIA RD.

주인이 은퇴상 팔려고 하는 이윤좋은 비즈네스.
에토비코에 쇼핑 멀안에 있음 ASKING $95,000
☎ : 233—9866

스토아 매매 : OPEN WINDOW BAKERY및 그로서리가게
이주관계로 매매, 직접내방 상담요망
550 BLOOR ST.

그로서리 가게 매매(경쟁없음)
주매상 $4500이상, 리스5년+옵션5년, 렌트 월 $995
(윗층 살림집5개룸 포함)
ASKING $42000
9 KINTYRE AVE. TORONTO, ONT.

물건판매 : KEY MADE MACHINE, WINDOW SHOW
CASE, CASH REGISTER, REFRIGERATOR.
☎ : 362—3592

아이스크림 기계 팝니다 :
☎ : 535—7772, 439—8885 (오후6시 이후)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 465—4003

성업중인 햄버거 샾 급매
다운다운지역
☎ : 535—2804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OPEN 하우스
토, 일요일 오후1~3시, 평일 오후6~8시
10.5% 몰게지 시작, LANSDOWNE서브웨이 가까운지역
6룸, 2키친, 현 이자율에 비해 4년동안 $2500 세입
가능, ASKING $69,900에 약15000다운
☎ : 232—2200 JOHN SCHWEIGEL
RED ROSE R E LTD REALTOR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
몰랜 NEW STORE PLAZA안 에 위치
주매상 $5500+ 로타리오
TICKET SALE(월 $15000)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855 JANE ST. TOR. ONT.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 김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크 리 스 티 미 용 실 (크리스티 서브웨이 건너편)
남녀 노소 커트, 셋트, 파마 전문
727 Bloor St. W. (B) 533—2569, (R) 967—1518 미세스 박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타일 •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
여름밤을 식히는
노래·만담의 향연
7월3일(금) 하오7시30분
센트럴 · 테크니칼 · 스쿨
(베더스트×하보드)
★★★★★★★★★★★★★★

= 매표개시 =
본지 일간발행 기념
노래·만담의 향연
매표소 : 각식품점및 본사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INIT TUNE : 주정부 지정 차량검사장
①TUNE UP, ②BRAKE검사무료, ③각종차수리일체
☎ : 782—6311 이 태 경(793 Spadina Rd. at Eglinton)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HILL TOP AUTOBODY
● 페인팅 전문 ● 완전한 바디웍
13367 YONGE ST. (Up Yonge North
Richmond hill)
☎ : 773—7777, 773—4362

식품점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3—0656(B), 493—7185(R)
정 해 문(휜치×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식 당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 0200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액숀조정, 건반, 캐비넷칠, 조율 중고매매. 김 수 용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 466—4304, 469—3341 박 기 창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 이인식)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기 타

사람을 찾음 :
천두섭 딸 천혜경 찾음 76년 왔음, 서울 을지로 5가
창림사 이태희 씨애를 ☎ : 1—206—329—5903

영어개인교수지도함
상세한 문의는
☎ : 279—7433 EVENING

한국미술공예 원함
당신이 한국 미술품이나 공예품의 수입상
이거나, 도매, 소매를 취급하는 분이라면
새로운 국제시장에의 비즈네스 길을 열지
않으시렵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
전화로 연락을 바랍니다.
☎ : (416) 598—1414 SYLVIA ZINGRONE

여행사관광 코스(학교)가르칩니다.
7월과 9월에 코스가 시작되며, 낮반과 저녁반이
있읍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363—3286으로
전화하십시요.
바트리 INSTITUTE OF TRAVEL
MR. ZONENBERG

BEAR PAWS, GOAL BLADDERS
웅담 팝니다. ☎ : 463—3572
오전10시~오후7시(월~금)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일간발행 기념

교포위문대공연!!

●최고의 인기 정상가수 총출연 ●최고의 가수진 ●최고의 캄보밴드 ●최고의 코메디안

◎일 시 : 1981년 7월3일(금) 7시30분

◎장 소 : CENTRAL TECHNICAL SCHOOL
(BATHURST & HARBORD)

◎입장권 : $12.00, $10.00

<입장권 예매처>

●본 사 ●한 국 관 ●고려식품 ●단풍식품 ●동양식품
●삼복식품 ●서울식품 ●한국식품<동부, 서부, 본점>

주최 : 한국일보사